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국어 보어의 범위 설정과 유형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고 현 희

2007년 2월

국어 보어의 범위 설정과 유형 연구

지도교수 김 태 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제출자 고 현 희

고현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12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국어 보어의 범위 설정과 유형 연구

고 현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 교수 김 태 곤

이 연구는 학교문법의 보어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범위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보어를 설정하고 그 보격조사의 형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어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성분으로 한 문장의 통사적·의미적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요소이며 실현되지 않는다면 통사적·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필수적 문장 구성 성분’임을 전제로 하여 서술어를 중심으로 통사론적·의미론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했다.

2장에서는 학교문법의 보어와 보어의 범위 설정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학교문법은 문법체계의 명료화와 단순화를 위해 조사의 형태에만 입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협의적 관점에서 보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 성분인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되다’와 ‘아니다’ 외에 느낌형용사 등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더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서술어와 결합하는 명사만을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필수적 부사어를 그 형태에 관계 없이 모두 보어로 규정한 견해는 가장 광범위한 관점에서 보어를 설정하고 있다. 이 견해의 문제점은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어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와 그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어를 이중주어로 설정한 견해는 보어를 부정하고 이중주어로 보는 입장인데, 특정한 조사를 가진 보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어는

* 이 논문은 2007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주부에 속하고, 보어는 술부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으로 다루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뒤따르며, 중복된 주어는 동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주어와 보어는 이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조적 특성 또한 다르다.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로 규정하는 견해는 필수적 부사어 중 명사 형태만을 보어로 보는데, 그 문제점은 보격조사와 부사격조사의 중첩으로 인해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며 문장성분을 판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의의 관점에서 보어를 규정하고 있지만,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필수적, 수의적 성분으로 나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보어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성분으로서, 서술어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본다.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도 서술어의 의미이며, 필수적 구성성분인 보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도 서술어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보어란 서술어의 부족한 의미를 보충하여 문장의 뜻을 완성시키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였다.

3장에서는 보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격조사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보어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성분 중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류+조사’ 형태만을 보어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보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 보어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나 명사 형태로 나타난다.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성분이 ‘명사’ 형태뿐만 아니라 ‘부사’ 형태로 나타나지만 ‘명사류+조사’만을 보어로 규정하려는 것은 형태의 명확성과 일관성 때문이다. 즉, 국어를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 아래에서 설명함으로써 문법체계에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보격조사는 ‘-이/가’, ‘-에’, ‘-(으)로’, ‘-와/과’이다. ‘-이/가’는 학교문법에서 규정한 보격조사와 같은 형태지만, ‘명사+-이/가’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다르다. 학교문법에서는 ‘되다’와 ‘아니다’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맞다, 좋다, 싫다’ 등 다양한 서술어를 제시하였다. ‘명사+-에’ 형태의 보어는 학교문법에서는 필수적 부사어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어로 규정하였다. ‘가다, 다니다’와 같은 이동 동사와 ‘감사하다, 기대다, 걸리다’ 등의 서술어는 ‘-에’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으)로’ 또한 ‘다가오다, 가다, 되다’와 같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으로 이 연구에서는 보격조사로 설정했으며, ‘-와/과’ 보어도 ‘연관되다, 마찬가지로, 만나다, 다르다’ 등과 같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보았다.

학교문법의 보어규정은 문장 안에서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는 성분을 각각 다른 문장성분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현상은 협의적 관점에서 보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보격조사의 형태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3
1.3. 선행 연구 검토 -----	4
II. 보어의 범위 설정과 그 문제점-----	8
2.1. 학교문법에서의 보어와 문제점-----	8
2.2.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보어로 보는 문제점-----	13
2.3. 이중주어론과 문제점-----	17
2.4. ‘명사류+조사’를 보어로 보는 문제점-----	23
2.5. 보어의 개념-----	29
III. 보어의 범위 설정과 보격조사의 유형-----	34
3.1. 보어의 범위 설정-----	34
3.2. 보격조사의 유형-----	39
3.2.1. {-이/가}-----	39
3.2.2. {-에}-----	43
3.2.3. {- (으)로}-----	48
3.2.4. {-와/과}-----	53
VI. 결론 -----	58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5

I. 서론

1.1. 연구 목적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는 초기문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켜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규정이나 범위에 이견이 가장 많은 문장성분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크게 보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여부와 보어를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때 어디까지를 보어로 볼 것인가에 관한 보어의 범위 설정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현재 학교문법에서 보어는 다양한 논의들의 협의적 관점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 격조사 ‘-이/가’를 동반한 명사류를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어의 범위 설정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학교문법의 보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²⁾

- (1)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고등학교 문법」, 2003:153)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고등학교 문법」, 2003:153)
* 물이 되었다.

학교문법에서 위 예문의 ‘얼음이’와 ‘얼음으로’는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문장성분에서는 보어와 부사어가 된다. 특히 (나)의 ‘얼음으로’는 결합한 조사가 부사격이기 때문에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가 된다. 그러나 ‘얼음으로’가 생략되면 위 예문에서 보듯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얼음으로’는 형

2) 고등학교 「문법」(2003:153)의 탐구 2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차이점을 모둠별로 탐구해 보자.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 각각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성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여 보자.
· 이 둘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설명해 보자.

태적으로 부사어에 속하지만 필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필수적 부사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문법의 규정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보어에 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 역시 학교문법에서의 보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어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타동사에 대하여 목적어를 설정하는 것처럼 목적어 이외에도 동사의 부류에 따라 동사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보어이다. 즉, 보어란 한 문장에서 동사 단독으로 의미가 완결되지 못하고 부족할 때 의미상의 보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성분이다. 보어는 서술어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장성분이므로, 보어의 요구 여부는 서술어의 특성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보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데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보어가 문장의 서술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어의 개념을 살피고 보어의 범위와 유형을 규정할 것이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어의 문제점은 ‘되다’, ‘아니다’ 앞의 ‘명사류+-이/가’ 형만을 보어로 인정하는 협의의 관점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위 예문 (1)에서 보듯이 같은 기능과 의미를 갖더라도 별개의 문장성분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어의 범위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의 범위 안에서 논의할 것이다. 보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보어가 갖고 있던 문제점들이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사용과 문법기술의 간격을 좁힐 수는 있을 것이다. ‘-에’, ‘-에게’, ‘-에서’, ‘-로’, ‘-와/과’, ‘-보다’ 등을 부사격 조사로만 보는 것은 조사 분류의 경계면에서는 명확성을 부여해주나, 이로 인해 보어의 범위를 한정되게 규정함으로써 문장의 필수성분을 수의적 성분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낳았다.³⁾ 격조

3) ‘영회는 아침에 세미나에 참석했다.’

위 문장에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한 명사구 ‘아침에’와 ‘세미나에’는 문장성분이 부사어가 된다. 그러나 이 두 ‘에’ 명사구가 서술어와 갖는 관련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아침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미나에’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다. 이에 대해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어와 관련성이 적은 ‘아침에’를 수의적 부사어로, 서술어의 의미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미나에’는 필수적 부사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어와 갖는 관련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사+에’라는 형태상의 특성으로 인해 동일한 문장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사 ‘-이/가’가 주격조사와 보격조사로 쓰이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격조사들이 보격조사와 부사격조사로 쓰임을 부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어와 서술어와의 밀착성을 살펴봄으로써 보어 설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가’, ‘-에’, ‘-로’, ‘-와/과’와 결합하는 명사류 중 서술어와 밀착성을 갖는 대상들을 보어에 편입함으로써 보어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보격조사의 유형을 살펴 볼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보어는 초기 문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소재로, 많은 연구서들에서 그 논의를 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어떤 특정한 이론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보어에 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할 것이다. 보어에 관한 연구는 격조사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70년대 이후부터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논문에서 ‘보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성분으로, 한 문장의 통사적·의미적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며 실현되지 않는다면 통사적·의미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필수적 문장 구성 성분’임을 전제로 하여 서술어를 중심으로 통사론적·의미론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된 70년대 이후의 연구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보어에 관한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에 관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정리해 볼 것이다. 학교문법을 처음에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학교문법을 논의한 후에는 여러 연구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견해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어의 개념을 규정하겠다. 보어의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면, 보어의 범위 설정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보어의 규정 여부에 많

이 사용되는 기준은 생략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전제가 주어진 상황이면 주성분이라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예들은 텍스트나 화용론적인 차원이 아닌 단문 차원임을 밝혀둔다. 보어의 범위 설정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격조사의 유형을 규정할 것이다.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이 논문은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어지는 성분 중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의 범위에 넣을 것이다. 따라서 보격조사는 부사격조사와 중첩이 된다. 학교문법에서는 부사격조사로 다루어지는 성분 중, 모든 부사격조사가 보격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논항으로 나타나는 형태만을 보격조사로 인정할 것이다. 각각의 보어 유형에는 그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들을 제시하겠다.

1.3. 선행 연구 검토

현대 국어 문법에서 보어에 관한 연구는 초기 문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다. 보어를 인정하는 문법체계와 인정하지 않는 문법체계가 있으며, 보어를 인정하는 문법체계 내에서도 그것에 관한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다. 초기 문법 시기에서 70년대 초까지는 보어를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논쟁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보어를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성분으로 설정하되, 어디까지를 보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논의 되었다. 또한 보어의 범위를 설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보어의 범위가 나뉘었다. 하나는 조사 중심의 형태론적 특성에 입각해 보어를 설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 중심의 의미·기능론적 특성에 따라 보어를 설정하는 것이다.

보어 설정을 부정한 최근의 논의는 허웅(1970), 민현식(1999) 등에서 다루어졌다. 허웅(1970)은 조사의 기능을 중심으로 문장 성분을 분류하였다. 주성분을 주어, 목적어, 위치어, 대비어, 방편어, 인용어, 서술어로 분류하고 부속성분을 관형어와 부사어로 나누었다. 비교나 공동을 나타내는 말은 대비어로, 시

간, 장소, 원인, 방향, 출발, 상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방편어로, 인용을 나타내는 말은 인용어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보어를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비어, 방편어, 인용어 등이 보어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민현식(1999)에서는 보어 설정론이 순수한 통사론적 논의에 근거한 태도라기보다는 통사 의미론적 논의에 근거한 태도이므로 형태 중심의 순수한 통사론적 차원에서는 보어를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 보격으로 보아 온 예들의 격형태는 주격, 부사격 형태와 중복되어 해석상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보어성의 판단이 주관적인 의미 기준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불완전 서술어의 목록이 매우 유동적이 되며 어휘항마다 일일이 판단하고 기억해야 하는 문법기술상의 부담이 따른다고 하였다.

보어 설정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견해는 김민수(1971), 성광수(1974), 이광정(1980), 남기심·고영근(1993), 서정수(1996), 정유진(1995), 임홍빈·장소원(1995), 이홍식(2000), 조경순(2001), 최형강(2002) 등과 학교문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어 인정론자들의 보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견해는 설정 기준에 따라 각기 그 체계를 달리한다. 김민수(1971)를 기점으로 이전의 연구들은 격조사의 형태를 위주로 보어를 설정했다.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 같다’의 서술을 보충하는 ‘명사 +-이/가, -와/과’의 경우만을 보어로 보는 경우가 있고, 동사 ‘삼다, 부르다’의 서술을 보충하는 ‘명사 +-으로/로, -이라고/-라고’까지 보어의 범위에 넣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민수(1971) 이후에는 보어와 서술어와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동사의 특성을 고려해 보어를 설정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김민수(1971)에서는 보어와 서술어가 이루는 관계가 귀착관계(歸着關係)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보어는 불완전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에 의미상 보충될 대상으로 귀결되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에게 속는다, ~로 변하다, ~와/과 맞는다, ~에게 준다, ~로 만든다, ~에 밝다, ~에 열성이다, ~에게 시비다, ~보다 효과적이다’ 등에서 밑줄 친 말에 해당하는 요소가 술부에 있어야 하는 요소이므로 보어라고 하였다. 성광수(1974)에서는 동사와의 공기관계에서 필수적인 격과 선택적인 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때 필수적인 격을 다 보어로 취급하는 광의의 보어와 주어, 목적어화에서 제외된 필수격만

을 보어로 보는 협의의 보어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주어, 목적어 등과 대등한 비중으로 취급 할 경우엔 좁은 의미의 보어가 일반성이 있다고 하였다. ‘영자가 수리(계산)에 어둡다.’나 ‘사랑이 증오로 변했다.’의 밑줄 친 말이 그 예로 제시되었다. 성광수(1974)는 필수적인 보어와 선택적인 부사어의 구분이 경험론에 맡겨짐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석진(1989)에서도 동사를 위주로 보어를 규정했다. 핵어중심구구조문법(HPSG)를 문법모델로 삼아, 한 문장의 핵어가 되는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성분은 기본적으로 보어라고 정의하면서, 필수적 보어와 수의적 보어로 나누었다. 서정수(1996)는 최현배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명사구는 지정사/계사와 어울려 보어의 구실을 한다고 했다. 정유진(1995)⁴⁾은 Somers(1987)의 보충어의 단계성에 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동사가 하위범주화하는 논항으로 주어, 목적어 이외 한 문장의 의미완결에 기여하는 요소를 보어라 하고, 화용적 생략 가능성에 따라 필수적 보어와 수의적 보어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홍식(2000)은 조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보어를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되다,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싫다, 무섭다’와 같은 심리 형용사 구성의 경우에도 ‘-이/가’ 보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에’를 동반한 보어는 주로 이동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나 ‘어울리다, 반하다’와 같은 서술어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만나다, 싸우다, 닦다’와 같이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상이 둘 이상 필요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미론을 만족하기 위해 ‘-와’보어가 필요하며, 방향의 의미를 갖는 ‘-로’ 보어는 주로 이동 동사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조경순(2001)⁵⁾은 동사의 의미

- 4) 정유진(1995)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국어 문법에서 보어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국어 보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주 미미했다.
 둘째, 동사의 의미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논의에서도, 보어가 보여주는 통사적 특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함으로 인해, 보어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셋째, 생략현상은 화용론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보어의 생략가능성을 인식한 논의는 보어의 범위규명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넷째,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에 입각한 기본문형을 틀로 국어 문장을 만든다면, 많은 비문들이 생성된다.
- 5) 조경순(2001)은 보어에 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표층으로 도출된 문장에만 연구가 국한되어 있어서 서술어의 의미 구조 및 통사 구조와 보어의 연결 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둘째, 동일한 연구 체계 내에서 진행된 이중 주어 및 필수 부사어와의 연구가 미흡하다.
 셋째, 보어와 결합하는 격조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구조와 논항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구문 분석 이론을 통해, 어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 사이의 연결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어 설정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보어의 유형을 분류했다. 최형강(2002)은 격조사 교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서술어와 보어가 맺는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보격조사의 개별적인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상의 국어 보어 연구를 살펴 본 결과, 최근 보어에 대한 연구는 동사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보어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II. 보어의 범위 설정과 그 문제점

2.1. 학교 문법에서의 보어와 문제점

(2) 가. 네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구나.

나. 저것은 소나무가 아니오.

(3) 가. * 네가 벌써 되었구나.

나. * 저것은 아니오.

위 예문은 ‘대학생이’, ‘소나무가’가 생략되면 뜻이 통하지 않는 비문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이’, ‘소나무가’는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보어라 규정하고 있다. 학교문법에서 보어는 동사 ‘되다’, 형용사 ‘아니다’와 같은 불완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러나 학교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성분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만으로 모든 필수적 성분이 다 망라되는 것은 아니다.

(4) 가. 나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

* 나는 영희를 삼았다.

나.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 이 편지를 넣어라.

다.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 이것은 다르다.

라.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 나도 참석했다.

마. 선생님께서 영수에게 상을 주셨다.

* 선생님께서 상을 주셨다.

바. 선희는 어머니와 닮았다.

* 선희는 닮았다.

사. 이 화분을 식탁 위에 놓아라.

* 이 화분을 식탁 놓아라.

아. 김군은 무역회사에 다닌다.

* 김군은 다닌다.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 역시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분들이다. 서술어 ‘삼다, 놓다, 다르다, 주다, 닦다, 다니다’ 등은 ‘명사류+-(-으)로, -와(과), -에(게)’ 등 주어, 목적어 이외의 필수적 성분을 요구하는 불완전 서술어이다. 그래서 ‘명사류+-(-으)로, -와(과), -에(게)’ 등은 문장의 의미 완성에 반드시 요구되는 성분들이지만, 학교문법에서는 결합하는 격조사의 형태에 따라 이것들을 부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형태적 특성상 부사어로 규정하지만 그 의미적 필수성을 고려해 이들을 필수적 부사어로 세분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문법의 규정에 관해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의견들 중 대표적인 것은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기심·고영근(1993)은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이들을 다 보어로 처리하려면 ‘-(으)로’, ‘-와(과)’, ‘-에(게)……’ 등을 보격조사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다른 서술어와는 부사격조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가. 결혼일자를 이달 15일로 정해야지?

나. 호철이가 순영이와 집을 나갔다.

다. 차를 다리 앞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거라.

(5') 가. 결혼일자를 정해야지?

나. 호철이가 집을 나갔다.

다. 차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가거라.

남기심·고영근(1993)에 따르면 밑줄 그은 단어들은 조사 ‘-(으)로’, ‘-와/과’, ‘-에’가 붙어서 이루어진 성분들로서 없어도 문장은 성립한다. (5')와 같이 생

략해도 의미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문 (5)의 밑줄 친 말들은 부사어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조사는 부사격조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예문 (5)의 밑줄 친 말들을 보어라 한다면 ‘-(으)로’, ‘-와/과’, ‘-에(게)…’ 등의 조사를 동시에 부사격 조사와 보격조사로 분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견해이다. 주어나 목적어는 그 격조사가 ‘-이/가’ 또는 ‘-을/를’인 것으로 선명하게 규정이 되지만, 위와 같이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조사를 보격조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기심·고영근(1993)의 견해에 대해 박영순(1986)에서는 보격조사를 폭넓게 규정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어나 부사어나의 관건이 되는 필수나, 수의나의 대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보어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기술하면 간결한 문법이 될 것 같지만 부사어는 문장의 수의적 성분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면서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더 번거롭다는 것이다. 논자 역시 박영순(1986)의 견해와 동일한 입장이다.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격조사와 주격조사는 형태가 동일하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이것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문법체계의 단순화와 명료화를 위해 격조사의 중첩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격조사의 형태에 따라 문장성분을 판별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문법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격조사와 부사격조사의 중첩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 부사어를 설정한 것은 더 큰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다. 본래 규범문법은 복잡한 언어현상 속에 숨어 있는 질서를 찾아 규범화한 것으로, 언어 사용자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술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순수한 학문적인 문법과는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단, 명료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고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다. 둘째, 목적어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유무에 따라 동사가 크게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삼다’, ‘다르다’, ‘났다’와 같이 일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된 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용언은 수도 많지 않으며, 그 통사적 특징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순(1986)은 오히려 이렇게 일반

부사격조사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문장성분을 일률적으로 부사어로 보고, 용언이 그 개별적 특성에 의해 이들 부사어 중 어느 한 가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즉, 서술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전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남기심·고영근(1993)은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보자는 의견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에 타당성을 제시하지만 보어의 한계점⁶⁾ 또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좋다’, ‘싫다’, ‘징그럽다’와 같은 느낌형용사는 보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6) 가. 나는 네가 좋다.

나. 나는 그 사람이 싫더라.

‘좋다’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에서와 같이 한 자리 성상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위의 “나는 네가 좋다”에서와 같이 두 자리 느낌형용사도 된다고 하였다. 느낌형용사로서의 ‘좋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주어는 항상 말하는 이 자신이며, 그 좋아하는 대상은 조사 ‘-이/가’를 취한다. 만약 말하는 이 이외의 인물이 주어가 되면 ‘좋다’는 ‘-아/어 하다’를 취한 동사형으로 나타나며 그 대상은 목적격 조사 ‘-을/를’이 붙어서 “그가 너를 좋아한다.”와 같이 된다고 하였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춥다’, ‘징그럽다’... 같은 느낌형용사가 모두 이와 같다고 하였다. 이들은 말하는 이의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구문 형식은 항상 ‘말하는 이+-이/가-체언+-이/가-느낌형용사’의 꼴을 취한다. 이 때 그 두 번째 성분 ‘체언+-이/가’는 뜻으로 보아 말하는 이가 갖는 어떤 감정의 대상인데, 이렇게 보면 느낌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체언+-이/가’를 보어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5년 학교문법 단일본의 취지에 따라 느낌형용사가 요구하는 ‘체언+-이/가’는 보어가 아닌 서술절을 안은 구문으로

6) 1985년부터의 문교부 학교문법 단일본에서는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의 앞에 오는 ‘체언+이/가’만 보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이 때의 ‘-이/가’가 서술절의 주어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수의적인 부사어도 아닌 한편, 보어로서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보격조사는 ‘-이/가’로 한정되어 비교적 명백하기는 하나 주격조사와 형태가 같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처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되다’, ‘아니다’ 외에도 서술어의 의미보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성분들을 보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다양하게 보려는 반면 보격조사는 여전히 ‘-이/가’만을 규정하고 있다.

박영순(1986)은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로 볼 수 없다는 견해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보어를 취하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두 개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어를 설정하면서 부사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동사류는 수십 가지나 되는데 수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통사적 특징을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문장에서 주어, 술어, 목적어 외에 또 어떤 성분을 필수적으로 가지느냐, 수의적으로 가지느냐는 뚜렷한 특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 또한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수가 많지 않다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한다.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수는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수보다 훨씬 많다.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목록은 3장에서 제시한다.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문법의 보어 규정에 관한 문제점 >

- ① 문법체계의 명료화와 단순화를 위해 조사의 형태에만 입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협의적 관점에서 보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부속 성분인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 ③ ‘되다’, ‘아니다’ 외에 느낌형용사 등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더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서술어와 결합하는 명사류만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 ④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보격조사는 여전히 ‘-이/가’만을 설정하고 있다.

2.2.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보어로 보는 문제점

현행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되는 성분들을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보어로 인정하자는 학자들은 조사의 형태가 아닌 오로지 서술어의 의미 특성만을 중심으로 보어 설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것은 ‘명사류+조사’만을 보어로 인정하자는 견해보다 더 확대된 범위에서 보어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견해의 등장 배경은 서술어의 불완전함을 보충한다는 보어의 개념에 충실하려는 의도와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부사어를 설정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서 나온 것이다.

- (7) 가. 그가 네게 속는다.
나. 토끼가 거북에게 진다.
다. 은영이 마음이 그와 잘 맞는다.
라. 승민이가 시험에 붙었다.
마. 순이가 그것을 선생님에게 묻는다.
바. 밥이 죽이 되었다.
사.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아. 사랑이 중오로 변했다.
자. 영식이는 시계를 보물로 여긴다.
차. 영식이는 그녀를 좋게 여긴다.
카. 영식이는 그녀를 성실하게 여긴다.

백주현(1983)에서는 동사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어를 설정하고, 서술어의 의미 보충을 위해 서술어 앞에 나타나는 명사나 기타를 보어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모두 보어가 된다. 백주현(1983)에 따르면 보어는 술부 구성에 필요한 근간요소이므로 그 술어에 보충되어야 하는 대상이고, 부사어는 술부 구성에 없어도 되는 지엽요소이기 때문에 대상이 어떠한 요소든 그 뜻을 정밀화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어·부사어는 동사 특성에서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로 판단이 쉽게 구분되지만, 서술어와 연결되어 서술부를 이룬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또한 때로는 같은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구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어와 부사어를 필수성의 유무만으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필수성의 유무를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성의 유무는 개인의 직관에 의존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문장성분의 필수성 여부는 ‘생략가능성’에 의존해왔다. 그 문장성분을 생략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문법적이면 그 생략된 성분은 문장성립에 없어도 되며, 반면에 생략되었을 때 남은 문장이 비문법적이면 그 성분은 문장성립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생략가능성’의 기준은 필수성의 여부를 판가름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여기에서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생략가능성’이 타당한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유진(1995)에 따르면 생략이라는 것은 문맥과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현상이며, 텍스트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그 문장이 이해될 수 있으며 동시에 보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논항이라고 하더라도 텍스트 상에서 특정한 문맥이 주어진다면 혹은 우리의 세계지식으로 그 생략된 요소가 추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전제로 하는 생략현상에 기준을 두고 그것이 보어나 부사어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성광수(1974)에서도 동사의 특성에 따라 공기하는 격의 결정에서 필수와 선택의 격 선정 방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이 아닌 경험론적인 분류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백주현(1983)은 예문 (차, 카)의 ‘ 좋게, 성실하게’도 보어로 처리했다. 비록 조사를 취하는 체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게·지·고’의 부사형이 아닐뿐더러 ‘ 좋게, 성실하게’가 빠지면 비문법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기다’는 앞에 부사형 ‘~게’를 필요로 하는 보조용언도 아니고, ‘ 좋게’, ‘ 성실하게’가 ‘여기다’를 한정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좋다, 그녀가 성실하다」의 표현으로 「영식은 [그녀가 좋다(성실하다)] 라고 여긴다.」의 구조로 보았다. (자) 문장도 「영식은 [시계가 보물이다] 여긴다.」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로, 표면구조로 나타날 때 「영식은 시계를 보물로 여긴다.」가 된다는 것이다. 단지 (자) 문장과 (차, 카) 문장의 차이점은 ‘시계가 보물이다’는 소위 술어문이고 ‘그녀가 좋다(성실하다)’는 형용사문으로, 목적격보어가 목적어에 대하여 내면상 서술어가 됨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 좋게’, ‘성실하게’가 형태상 부사형이라도 보어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이다. 최형기(1996)는 격조사를 기준으로 부사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일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논의는 동사의 의미특성을 중심으로 보어를 규정해야 함을 밝히고, 보어와 부사어의 구분은 그것이 필수적 성분인가, 수의적 성분인가가 일차적 관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객관적인 판별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최형기(1996)에서 보어와 부사어 판별의 일차적 관건은 필수성의 유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래에 부사어로서 필수성분의 직능을 지니고 있는 것들은 모두 보어로 취급하고 있다. 김경훈(1996)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반드시 명사구여야 할 조건이 없고, 문장의 주요 성분은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품사적인 조건이 제약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문장의 주요소로 쓰이는 것이면 그것이 부사어의 모습이든 아니든 구애받지 않고 논항, 즉 보어의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박영순(2005)은 조사 위주의 문법기술은 형식 위주 문법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탐구심이나, 사고력의 신장이라는 교육목표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오류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그러므로 문장성분은 조사 위주로 기술해서는 안 되고 주어진 단어의 문장 내에서의 기능 혹은 역할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속성분인 부사어에 첨가되는 조사와 동일한 조사가 쓰였더라도 주어진 문장 안에서 그 성분의 유무에 문장의 완전성 여부가 달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단순한 부사어인지 보어인지가 구별되리라 보았다. ‘이 그림이 실물과 꼭 같군요.’와 ‘철수는 미숙과 결혼했다.’에서 ‘실물과’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지만, ‘미숙과’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실물과’를 보어로 ‘미숙과’를 부사어로 처리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생략가능성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어, 부사어의 판별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박영순(2005)은 보격조사의 범위를 넓히

면 필수 부사어를 모두 보어의 범주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할 때 보어가 필수 성분임을 일관성 있게 기술할 수 있으며,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기능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학교문법의 규정처럼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로 다시 구분하는 것은, 보격조사와 보어를 취하는 동사를 제한한다는 점 외엔 일관성이 없고, 비합리적이며 갈수록 복잡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관규(1999) 역시 부사어는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라는 기본적인 정의를 어겨 가면서까지 '필수적 부사어'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반드시 요청되는 모든 필수적인 주성분을 보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견해들은 보어와 부사어의 개념에 충실하면서,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와 수의적 부사어로 나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깔끔한 문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어와 부사어의 판별법으로 생략가능성을 언급하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혼란이 따른다는 것은 자명하다.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보어로 보는 견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명사 형태와 부사 형태를 모두 보어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보어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으로, 명사 형태로 나타나며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부사 형태로 나타난다. 오로지 필수성만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두 성분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필수 부사어를 모두 보어로 처리하게 되면 보어는 같은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와 그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며 복잡한 형태의 문법체계가 된다.

필수 부사어까지를 보어로 규정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보어로 규정한 견해의 문제점 >

- 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생략가능성을 보어, 부사어의 판별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②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어로 보고 있다.
- ③ 같은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와 그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

2.3. 이중주어론과 문제점

- (8) 가.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나. 구름이 비가 된다.
다. 물이 얼음이 된다.

허 용(1970)에서는 보어를 설정하지 않고, 보어에 해당하는 성분을 부림말, 위치말, 방편말, 견준말 등으로 분류하였다. 예문 (8)의 밑줄 친 말들은 주어로 처리했는데, 이것들은 현행 학교문법에서 보어이다. 후술하겠지만 보어와 주어는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주어로 보기 어렵다.

민현식(1999)에서는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 서술어와 그렇지 않은 서술어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인 의미 중심의 논의라는 점과 고유한 보격조사 형태가 따로 없어 보격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주격조사 및 부사격조사와 중복되어 혼동을 준다는 점이 보어 설정에 회의를 갖게 한다고 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없듯이 고유의 격형태가 뒷받침되지 않는 범주는 그만큼 범주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어를 설정하지 않고 종래의 주격보어는 서술절의 주어, 목적격보어는 부사어로 보고 있다. 이는 완전성의 여부에 따른 용언의 분류와 이에 따른 서술어의 자릿수의 개념이 명시성을 특징으로 하는 형태에 따른 기준이 아니고 비명시적이고 자의적이며 주관적 성격을 띠는 의미 기준에 의하는 통사미론적 주제로서 이러한 개념에 따른 종래의 보어 범주는 순수한 통사론의 성분 개념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개념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어는 고유한 격형태가 없고 주어나 부사어의 한 특수한 의미 기능에 따른 성분이란 점에서 통사미론적 성분으로 부르고, 나머지 주어, 서술어…… 독립어는 고유 격형태가 뒷받침되는 통사론적 성분으로 부르도록 함으로써 다소 모호하게 통용되는 통사론과 통사미론이란 용어의 범주를 이런 성분론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어 개념을 통사미론에서는 허용할 수 있어도 순수한 통사론에서는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어는 문장의 의미 완성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다. 그러나 이러 완전성 여부에 따른 용언 분류는 그 완전성

이 문장 의미라는 추상적, 상대적 판단에 의하는 의미론적 문제로서 완전성의 정도에 따른 상대적 문법범주이기에 이것을 절대 범주인 양 간주하고 분류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반면에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 범주는 대응되는 격조사 형태가 명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어서 고유 격형태들의 뒷받침을 받는 절대적 범주이므로 문법 설명에서 명확한 변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이/가’는 주격, ‘-이다’는 서술격, ‘-을/를’은 목적격, ‘-의’는 관형격, ‘-에’, ‘-으로’, ‘-에게’, ‘-보다’, ‘-처럼’... 등은 부사격, ‘-아’, ‘-이여’는 독립격으로 보는 고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⁷⁾ 민현식(1999)에 따르면 소위 보격으로 보아 온 예들의 형태는 주격, 부사격 형태와 중복되어 주격, 부사격조사와 해석상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보어성의 판단이 주관적인 의미 기준으로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어를 요구하는 불완전용언의 목록이 매우 유동적이 되며 어휘항마다 일일이 판단하고 기억해야 하는 문법기술상의 부담이 따른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동안의 보어 설정론이 순수한 통사론적 논의에 근거한 태도라기보다는 통사의미론적 논의에 근거한 태도임을 재확인하면서 형태중심의 순수한 통사론적 차원에서는 보어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설정에서 ‘-이/가’가 붙어 보어로 보던 NP는 서술절의 주어로 보고, ‘-(으)로, -에, -와, -처럼, -만...’ 등이 붙는 NP는 부사어로 보면 보격 설정에 따른 격형태의 중복 소속에서 오는 대혼란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보격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중첩으로 서술어의 의미특성에 따

7)

	통사론(형태기준)	통사의미론(의미기준)
이/가	주어 - 주격	주어 - 주격 < 보어 - 보격 >
이다	서술어 - 서술격	서술어 - 서술격
을/를	목적어 - 목적격	목적어 - 목적격
의	관형어 - 관형격	관형어 - 관형격
(으)로, 에, 와, 처럼, 만	부사어 - 부사격	부사어 - 부사격 < 보어 - 보격 >
아, 이여	독립어 - 독립격	독립어 - 독립격

라 보어와 부사어를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간결하고 단순한 방법을 위해 모순이 되는 문법체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 보어는 항상 주관적인 의미 기준에 의해서만 설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조사를 가진 보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어의 개념은 필요하다. 민현식(1999)에서 보어 설정 문제는 결국 명시적 형태를 중시하고 그 성분격과 고유 격형태에 따른 절대범주 기준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성과 불완전성이라는 비명시적인 의미 기준에 따른 상대범주 기준을 우선시할 것인가의 문제로 통사론의 차원이라면 전자의 방법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고유 문법 형태가 존재하여 그 형태의 뒷받침을 확고히 받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와 같은 문법범주를 ‘절대범주’라 하고 그런 형태의 뒷받침이 어렵고 의미론적 해석에 따른 가변성을 내포한 보어와 같은 범주를 ‘상대범주’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격조사가 따로 발달하지 못한 점에 주목할 때 보어 범주는 의미론적 해석상에 나타나는 상대범주에 불과하며 절대범주가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보어라는 개념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등의 절대 성분 범주와 차원을 달리 하는 성분 개념으로 구별해야 할 것이다. 보어성의 판단이나 불완전용언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상대적 성격을 띠는 점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9) 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 나는 고향을 생각한다.
 다. 나는 그를 민주주의자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가)는 완전자동사문, (나)는 완전타동사문으로 보는 점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가)도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한다’의 구조로 보고 (나)도 ‘나는 고향을 (안식처로) 생각한다’의 구조로 보면 결코 완전자동사문들로 볼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다)는 ‘민족주의자’를 목격적 보어로 본다면 불완전타동사문이 되고 반면 ‘나는 그를 생각한다.’만으로도 완전타동사문이 되는 것으로 보면 ‘민족주의자’는 없어도 되는 부사어로 보게 된다. (다)의 ‘민족주의자’를 문장 구조상 필요성분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이며 그 해석 기준

은 주관적인 의미성에 근거하고 있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용언의 완전성 판단 여부란 용언마다 그 정도가 다양하고 주관적이어서 엄격한 기준이 불가능하므로 순수한 통사론의 주제라기보다는 통사의미론의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보어에 관한 논의의 문제점을 설명 방식의 구조적 모순에서 지적했다.

(10) 가. 나는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나.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가령 위 예문은 소위 불완전동사 ‘여기다’의 구문으로 ‘나는 그것을 () 여겼다’ 구조문인데, ‘그것을’을 목적어로 볼 때 ()에 해당하는 ‘기쁘게’, ‘기쁨으로’를 무슨 성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다’를 보어가 필요로 하는 불완전용언이라 했으면 그 앞에 오는 성분은 항상 보어로 같게 처리해야 할 텐데 ‘-게’는 부사형 어미로 보아 ‘기쁘게’는 부사어로 보면서 ‘으로’는 보격조사라 하여 ‘기쁨으로’는 보어라고 한다면 ‘여겼다’라는 용언을 동일한 위치의 () 성분에 대해 기능상 달리 대우한 것이 되어 문제이다. 즉 부사격조사 ‘-으로’가 ‘되다, 아니다, 여기다’ 등의 일부 용언 앞에 올 때에 한해 보격을 인정한다면 부사형 어미 ‘-게’도 이들 용언 앞에 쓰일 때는 보어형어미라고 하여 부사형어미 외에 보어형 어미도 마련해야 균형에 맞는데 ‘-으로’와 같은 격조사에서는 서술용언의 완전성, 불완전성에 따라 보격, 부사격으로 구분하면서도 ‘-게’와 같은 어미류에서는 용언의 이런 종류에 따라 보어형어미, 부사형어미로 나누지 않는 것은 기준의 비일관된 적용에서 오는 중대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순된 처리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모호한 보어, 보격의 개념 문제로 귀결되는바 보어, 보격 개념은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조사 ‘-이/가’를 동반한 체언만을 보어로 인정하고, 의미상 필수성분이지만 형태적으로 보어의 규정에 맞지 않는 성분들은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현식(1999)은 없어도 좋은 성분이 부사어라면서 필수적 부사어를 정하는 것도 모순이거니와 임의적인 부사어와 필수적인 부사어 역시 구별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이런 처

리는 보어 문제를 부사어 문제로 그대로 전가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민현식(1999)의 논의는 그동안 논란의 논란을 거듭해 왔던 복잡한 보어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 면도 있지만 여전히 부사어는 문제점으로 남는다. 위 예문 (10)에서 ‘기쁘게’는 문장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지만 부사어로 처리됨으로써 수의적 성분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자면 부사어는 다시 필수적, 수의적 성분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백주현(1983)은 이중주어문과 보어문은 내면구조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보어를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문의 근간성분으로 취급하고, 보어가 없으면 완전하고 독립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게 되며 보어가 빠지면 비문법문이 되는데, 그 점은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두 번째 명사가 빠지면 비문법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중주어문과의 구별을 요한다고 하였다.

- (11) 가. 토끼는 앞발이 짧다.
 나. 그분이 목이 쉬었다.
 다. 그는 사랑이 필요하다.
 라. 그 옷은 재가 문었다.
 마. 이 나무가 싹이 돋는다.
 바. 한강은 물이 불었다.
 사. 영수는 학자가 되었다.
 아. 영수는 학자가 아니다.

백주현(1983)은 위 예문에서 밑줄 친 말들이 빠지면 비문법문이 되는 점은 같으나, (가)~(바)는 이중주어문이고, (사)와 (아)는 보어가 사용된 문장으로 보았다. 백주현(1983)에 따르면 이중주어 문장은 표면적으로 < N₁ -는(은) N₂ -이(가) V>의 형태지만, 내면구조(기본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하였다.

- ① N₁ -의 N₂ -이(가) V
 ② N₂ -이(가) N₁ -에(에서) V

기본구조는 표면구조와 의미가 대등할 뿐만 아니라, 기본구조 체계에 이미 설정된 단순구조에 속한다. 이른바 이중주어 문장은 ①나 ②의 구조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①은 내면구조상 <N₂ -이(가)>가 주어이고, <N₁ -는(이)>는 일반적으로 관형어나 부사어의 구실을 한다. <N₁ -는(이)>는 표면구조상에서는 주체어의 구실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백주현(1983)은 위 예문 (사), (아)와 같은 보어문은 표면구조가 ②나 ③처럼 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② 변형이 가능한 글

- (11) 가. 토끼는 앞발이 짧다. → 토끼의 앞발이 짧다.(○)
- (11) 나. 그분이 목이 쉬었다. → 그분의 목이 쉬었다.(○)

③ 변형이 가능한 글

- (11) 다. 그는 사랑이 필요하다. → 사랑이 그에게 필요하다.(○)
- (11) 라. 그 옷은 재가 묻었다. → 재가 그 옷에 묻었다.(○)

② 변형과 ③ 변형이 동시에 가능한 글

- (11) 마. 이 나무가 싹이 돋는다.
→ 이 나무의 싹이 돋는다.(○)
→ 싹이 이 나무에 돋는다. / 이 나무에 싹이 돋는다.(○)
- (11) 바. 한강은 물이 불었다.
→ 한강의 물이 불었다.(○)
→ 물이 한강에 불었다. / 한강에 물이 불었다.(○)

그러나 보어문은 이러한 변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11) 사. 영수는 학자가 되었다.
→ 영수의 학자가 되었다.(×)

→ 학자가 영수에 되었다.(×)

(11) 아. 영수는 학자가 아니다.

→ 영수의 학자가 아니다.(×)

→ 학자가 영수에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백주현(1983)은 이중주어문과 보어문은 내면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였다. 주어부에 속하는 주어와 술부에 속하는 보어는 서로 이심적인 관계에 있으며, 중복된 주어는 모두 주부에 속하므로 동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요소가 ‘-의’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의미로 서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은 동심구성을 이룬다는 증거가 되며, 그 두 요소를 이중주어라고 보았다.

보어를 이중주어로 규정하는 견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보어를 이중주어로 규정한 견해의 문제점 >

- ① 특정한 조사를 가진 보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 ② 주어는 주부에 속하고, 보어는 술부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으로 다루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 ③ 중복된 주어는 동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어와 보어는 이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

2.4. ‘명사류+조사’를 보어로 보는 문제점

보어연구에서 주된 논의의 쟁점은 보어 설정 여부 보다는 보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보어는 주어나 목적어처럼 없어서는 안 될 문장의 필수성분이지만 학교문법에서 보어의 범위를 너무 협의적인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필수성분이 보어가 아닌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되고 있다. 보어의 형태를 ‘명사류+조사’로 보는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어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필수적 부사어까지 보어로 인정하자는 견해와 동일해 보이지만 보어의 형태 설정에서는 차이점을 보인다. 학교문법을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보어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명사류+조사’이다.

보어의 형태를 ‘명사류’에 국한해야 한다는 견해는 김민수(1971), 최호철(1995), 이홍식(2000), 유형선(1998), 정유진(1995), 조경순(2001), 최형강(2002) 등에서 볼 수 있다. 김민수(1971)에서 제시한 보어 설정 기준을 살펴보면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형으로 나타나지만 부용어는 거의 부사나 부용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보어의 형태를 ‘명사류+조사’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민수(1971)는 ‘-에’, ‘-(에)게’, ‘-(으)로’, ‘-와/과’, ‘-이/가’, ‘-보다’를 보격조사로 설정하였다. 최호철(1995)에서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와 함께 문장이 일정한 의미를 갖도록 마무리하는 서술 기능을 갖고 부사어는 비명항적 어사를 제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서술어와 관련을 맺는 주어, 목적어, 보어는 논항의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항적인 것이나, 부사어는 서술어 자체의 동작, 성질, 상태, 정도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문장 차원에서 서술어를 보충하는 논항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의 보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명항적 어사에 통사적 어사(격조사)가 결합된 것에서 분류되며, 부사어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비명항적 어사로 한정하고 있다. 최호철(1995)은 ‘-로’와 ‘-에’를 보격조사로 설정하였다. 이홍식(2000)은 전통적으로 보어는 명사구에 대해 부여하는 범주이고, 의미역을 보어와 관련시킬 때에도 역시 명사 상당어구로 범위를 국한하게 된다고 했다. 부사어가 의미역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최근 변형 생성 문법에서 핵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보어라고 하는데, 이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홍식(2000)에서는 조사의 의미론에 따라 4가지 형태의 보격조사를 설정하였는데, ‘-이/가’, ‘-에’, ‘-와’, ‘-로’ 보어가 그것이다. 유형선(1998)에서는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기

능을 하며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닌 것을 보어로 규정하고, ‘되다’, ‘아니다’에 수반되는 체언은 물론, ‘닭다’, ‘주다’에 수반되는 체언과 ‘예쁘다’, ‘무섭다’ 같은 심리 술어에 수반되는 체언도 보어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어 형태를 논의하면서 보어의 ‘구조적 필요성’을 논항으로 기능하는 경우와 양태로 기능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12) 가. 요즘 북한 주민이 끼니를 잇기가 어렵다.

나. 영희가 귀엽게 군다.

(가)는 ‘요즘 북한 주민이 어렵다.’는 문장에 ‘북한 주민이 끼니를 잇다.’가 내포된 것이고, (나)는 ‘영희가 군다.’는 문장에 ‘영희가 귀엽다.’가 내포된 것으로 보았다. (가)는 내포문이 명사형으로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나)는 내포문이 부사형으로서 부사의 기능을 한다. 위 문장을 예로 들어 유형선(1998)은 밑줄 친 부분이 논항으로 기능하는가 양태로 기능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논항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의사분열문화가 가능하지만 논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분열문화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12') 가. 북한 주민이 어려운 것은 끼니 잇기이다.

나. *영희가 구는 것은 귀엽게이다.

위 문장에서 ‘끼니 잇기’는 논항으로 기능하는 반면에 ‘귀엽게’는 양태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미역을 받지 못하는 양태는 논항이 아니고, 또한 논항이 아닌 것은 보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양태로 기능하는 ‘귀엽게’ 같은 성분은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하였다. 유형선(1998)에서 보어는 논항으로서 체언 형태로 나타나며, 부사 형태의 필수적 성분은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되었다. 조경순(2001)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동사와 보어의 연관성을 인식하면서도 표층으로도 출된 문장에만 연구가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⁸⁾을 지적했다. 그래서 어휘

8) 윤평현(1995)은 보어를 설정하는 기존 연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규정이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가 연결된다는 이론⁹⁾에 따라 어휘 의미 구조적 측면에서 보어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문장의 명시적인 구문 분석을 위해 Jackendoff(1990)를 바탕으로 한 양정석(1997)의 어휘 의미 구조 분석 방식과 우형식(1994)¹⁰⁾의 서술 구조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구문 상관관계>를 제시했다.

어휘 의미 구조 - 논항 구조 - 서술 구조

문장 구성의 핵은 서술어이므로 서술어의 어휘 의미에 의해 필수적인 문장 구성 성분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술어 중심의 서술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 구성 성분들이 서술어의 어휘 의미구조에 논항으로 반영되며, 논항 구조를 거쳐 통사 구조로 사상되면서 ‘명사구+격조사’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또한 조경순(2001)에서는 보어의 개념을 서술어와의 관계 즉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와 논항 구조를 통해 설정했다. 서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를 비교하면 작용 의미층에는 나타나지 않고 관계 의미층에서 처소나 경로 함수와 결합하는 논항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명사구와 대응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사구는 논항을 부여받는 필수적인 문장 구성 성분으로 서술어 의미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어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어의 형태를 ‘명사류+조사’로 규정할 경우, 부사어가 수의적, 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보어의 범위가 각 문법서마다 자의적으로 선택되어진다고 하였으며 보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의 성격과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였다.

9) Jackendoff(1990)의 연결 이론.

Jackendoff(1990)에서 통사 구조는 동사의 어휘 내항에 포함된 어휘적 의미에 의존하는 것으로,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는 개념적 원소인 의미항으로 구성되며, 의미항은 어휘 의미 범주와 이들의 함수 관계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 문장에서 내용을 가지는 주요 구성분은 모두 어떤 주요 개념 범주의 개념 구성 성분에 대응되며,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대응 규칙 내에 어떤 통사 범주가 어떤 개념 범주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더 특수화된 원리들이 있다고 했다.

10) 국어의 통사적인 특징 중의 하나로 교착어적 성격을 들 수 있는데, 심층 구조에서 표층구조로 사상될 경우 각 문장 성분들은 격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형식(1994)은 통사항의 기능을 격조사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국어의 구문 형식을 모형화한 서술 구조를 상정하고 있다.

어휘 의미 구조 - 논항구조 - 통사구조

수적 성분으로 나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조경순(2001)에서는 부사를 ‘명사구 부사어’와 ‘비명사구 부사어’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13) 가. 경찰은 이날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경비 업무에 들어갔다.

서술 구조: 들어가다 ; [-이 -에]

나. 철수는 순이와 학교에서 집으로 갔다.

서술 구조: 가다 ; [-이 -에서 -으로]

다. 그녀가 입술에 루즈를 과할 만큼 칠했다.

서술 구조: 칠하다 ; [-이 -에 -을]

라. 우리는 막혔던 물을 흐르도록 만들었다.

서술 구조: 만들다 ; [-이 -을?]

* 우리는 막혔던 물을 만들었다.

조경순(2001)에 따르면 위 예문 (13, 가)에서 논항과 대응 관계를 갖는 성분은 ‘경찰, 경비 업무’이고, (나)에서는 ‘철수, 학교, 집’이 논항을 부여 받는데, 논항을 부여 받는 성분들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명사구+격조사’ 형태를 지닌 ‘지역별로’, ‘순이와’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어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동사의 의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함수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부수적인 성분이라는 의미로 어휘 의미 구조에서 통사 구조로 사상될 때 주격, 목적격, 보격 조사와 결합한 필수 성분이 아닌 수의적 성분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각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에서 논항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근거해서 명사구라도 구문 형성의 핵이 되는 동사의 논항이 아닐 경우에는 수의적인 성분, 즉 부사어로 처리되며 통사구조에서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 ‘과할 만큼’은 비명사구 부사어 형태로 (가, 나)와 같이 논항을 부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라)의 밑줄 친 ‘흐르도록’은 부사이지만 문장에서 논항을 부여 받기 때문에, 생략할 경우 비문이 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조경순(2001)에서는 ‘흐르도록’을 대응 관계만을 고려하여 보어로 처리할 수 있으나, 명사구가 아닌 성분에 대해 의미역과 논항을 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미역은 개체, 수단, 위치, 실재 등에 부여되며 이는 명사 상당어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흐르도록’과 같은 논항을 부여 받는 비명사구 부사어를 부사절을 안은문장으로 보고 있다. 조경순(2001)에서 보격조사는 ‘-에’, ‘-으로’, ‘-에게’, ‘-와’, ‘-에서’, ‘-이’, ‘-에게서’, ‘-보다’, ‘-∅’이다. 최형강(2002)에서도 문장에서 논항을 부여 받는 성분들 중 ‘명사구+격조사’만을 보어로 설정하고 수식의 기능을 하는 성분은 부사어로 보고 있다. 최형강(2002)에서 설정한 보격 조사는 ‘-이/가’, ‘-에’, ‘-에게’, ‘-에서’, ‘-로’, ‘-와/과’, ‘-보다’이다.

격조사의 범위를 확장하는 관점에서 보어를 논의한 많은 문법서들에서 보어의 형태는 위와 같이 제시된다. 이것은 보어의 형태를 명사형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와 그 형태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형태적으로 안정된 문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보격조사와 부사격조사가 중첩되기 때문에 서술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장성분을 구별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목록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비명사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의 처리이다. ‘멋있게, 귀엽게’ 등의 필수적 부사어는 부사 형태로 서술어를 한정하여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명사류+조사’ 형태의 보어와는 당연히 그 특성이 다르다. 그러나 이것들은 부사형태지만 문장 안에서 필수성을 갖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를 설정은 피할 수 없다.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로 규정한 견해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로 규정한 견해의 문제점 >

- ① 보격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중첩으로 인해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며 문장성분을 판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 ②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수의적, 필수적으로 나뉘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2.5. 보어의 개념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어는 논의가 다양한 만큼 그 개념 역시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최현배(1971)에서는 보어를 기움말이라 했는데, 기움말이란 실질관념과 빈위(賓位)관념을 맺는 계사(Copula) ‘이다’와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만을 잡음씨(지정사)로 설정하여 불완전 용언으로 잡고 이 말을 기워주는 것이라 했다. 즉, 기움말은 잡음씨와 한 덩이가 되어서 월의 풀이를 온전히 하는 것이다. 유목상(1966)은 국어의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이며 이 서술어에 의해 문형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보어를 설정했다. 그래서 불완전자동사, 불완전형용사의 서술을 보충하는 말을 주격보어라 하고, 불완전타동사의 서술을 보충하는 성분을 목적격보어라 했다. 보어는 ‘-이, -와(과), -로(으로), -이라(고)’와 같은 격조사를 취한다는 점과, 주어 또는 목적어와 상응되는 자격을 지닌 말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민수(1971)에서 보어는 구문상 술부의 구성에 필요한 근간 요소이며, 술어의 행동·상태를 보충하는 주어나 객어의 대상이라고 하였으며, 그 특색으로 주어와 술어 사이의 징검다리과 같은 것이나 보어와 맺는 술어는 반드시 불완성의 용언이며 용언화형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성광수(1979)에서는 동사에 대한 격구조 자질의 결정이 동사와 공존할 수 있는 격결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 이상 필수적인 격을 다 보어로 취급할 수 있는 광의의 보어와 주어, 목적어화에서 제외된 필수격을 보어로 정하는 협의의 보어로 정리할 수 있다하여 ‘주어, 목적어 이외 문내(文內) 필수 성분으로서 문(文)의 뜻을 보완하는 말’을 보어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백주현(1983)에서 보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마찬가지로 문(文)의 근간성분으로 문(文)에서 그것이 없으면 완전하고 독립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보어는 불완전한 서술어 바로 앞에 오는 명사나 기타로서, 서술어의 불완전성을 보충해 주는 구문요소이다. 신연주(1989)에서 보어는 문장에 있어서 근간성분으로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외에 문(文)의 뜻을 보완하는 말이며 부사어, 관형어와는 달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완벽하게 맺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 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

은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문장성분을 보어로 설정했다. 서술어가 되는 용언 가운데에서 ‘되다, 아니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특정한 문장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러한 말이 없으면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최호철(1995)에서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되며 관형어, 부사어는 ‘성분’의 구성 성분이 되므로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와 관형어, 부사어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장성분 가운데에서 서술어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서 외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를 들 수 있으며 내적으로 부사어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향적인 특성으로서 서술어와 관련을 맺고, 부사어는 비명향적이 특성으로서 서술어와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 정유진(1995)에서는 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술어의 의미이며, 이것은 술어의 의미구조가 한 문장의 통사구조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문장의 구조를 이루는 필수적 구성성분인 보어의 자리(논항)를 결정하는 것도 술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때 보어는 어떤 식으로든 한 문장의 의미완결 혹은 술어의 완전한 의미실현에 기여하는 성분이라 보고, 동사가 하위 범주화하는 논항으로 주어, 목적어 이외 한 문장의 의미완결에 기여하는 요소를 보어라고 하였다. 정유진(1995)에서 주목할 점은 보어를 텍스트 차원에서의 생략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필수적 보어와 수의적 보어로 나누었다는 점이다. ‘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는 필수적 보어가, ‘영수는 미라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수의적 보어가 사용된 예인데, ‘아내로’가 생략되면 비문이 되지만 ‘미라에게’가 생략된 경우에는 비문으로 다루지 않았다. 정유진(1995)은 보어와 서술어와의 결속 정도에 따라 보어를 하위 구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분류는 문법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수의적’이란 용어는 ‘없어도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문장의 필수성분이라는 보어의 개념과 모순이 된다.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을 보어라 하고, 일부 용언에서는 문맥과 의미적 특질에 따라 문제의 성분이 보어가 된다고 하였다. 서정수(1996)에서는 지정사 ‘이다’와 어울려 서술 내용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보어이며 이때 지정사는 서술 기능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어라는 개념은 단순한 체언이라기보다는 그 앞의 수식어까지 포함한 명사구라고 하였다. 유형선(1998)에서는 문장에서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의미역을 갖고 있는 논항을 보어로 보고 있다. 최형기(1996)는 동사의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보어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보어란 한 문장에 동사 단독으로 의미가 완결되지 못하고 부족할 때 의미상의 보충을 위해 요구되는 문장성분이라고 하였다. 동사의 의미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성분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보어로 설정하였다. 이관규(1999)에서 보어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반드시 요청되는 필수적인 주성분이라 하고, 소위 필수 부사어까지 보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였다. 조정순(2001)에서 동사는 그와 관련되는 명사항에 격을 부여하는데, 이에 따라 명사항은 문장 안에서 특정의 의미와 통사적 기능을 갖는 구성 성분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장의 구성 성분은 동사와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성분과 수의적인 성분으로 구분되는데, 주어, 목적어 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관형어, 부사어 등이 수의적인 성분이라고 하였다. ‘철수가 잘 학생이 되었다.’, ‘철수가 장학생으로 되었다.’의 밑줄 친 말은 필수성분이며 문장 구성 성분으로 동일한 자격을 지니는데, 학교문법에서는 각각 다른 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격조사 실현 양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보어를 부사어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서술어의 어휘 의미 구조에 반영된 논항으로 서술어 의미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해 요구되는 문장성분을 보어라고 하였다. 최형강(2002)은 보어의 개념을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서술어의 논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보어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어를 문장의 필수성분으로 인정하며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성분으로 정의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어의 형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각 연구서마다 다르다. 대표적으로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되다, 아니다’에 선행하는 ‘명사’만을 보어로 보고 있다. 격조사의 형태에 따라 ‘-이/가’를 취하는 명사를 보어로, ‘-으로, -에, -와’ 등을 취하는 명사는 부사어로 본다. 그러나 각 명사구가 문장 안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 성분은 보어가 되고 다른 한 성분은 부사어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4) 가. 물이 얼음이 되었다.

나.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15) 가. 수증기가 비가 된다.

나. 구름이 비로 된다.

(16) 가. 영수는 선생님이 무섭다.

나. 창수가 교회에 다닌다.

다. 그의 얼굴이 야수로 변했다.

위 예문 14, 15의 (가, 나)는 문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격조사에 초점을 맞추어 문장성분을 분류한 일부 연구서들에서 조사 ‘-이/가’와 결합하는 ‘얼음이, 비가’는 필수성분인 보어로, 조사 ‘-으로, -로’와 결합한 ‘얼음으로, 비로’는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격을 부여하고 있다. 국어는 명사와 결합하는 격조사에 의해 그 문장성분의 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격과 격조사는 반드시 일 대 일의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격의 실현에 격조사가 반드시 형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우형식,1998) 이주행(1992)에서도 한 형태는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일형태(一形態) 일기능주의(一機能主義)는 언어 체계의 단순화를 기하는 데 유의한 점은 있지만 언어 체계의 정밀화와 명료화를 꾀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어 현상을 더욱 정밀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려면, 일형태(一形態) 다기능주의(多機能主義)의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설명해야 하며, 보어 역시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내포문에 보격 조사인 ‘-이/가, -(으)로, -와/과’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격조사는 격이 실현되는 위치가 아닌 곳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격조사는 그 형태만으로 문장성분을 구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격조사 실

현 양상에 의존하여 ‘-이/가’와 결합하는 명사는 보어로, ‘-으로, -에, -와/과’ 등의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는 부사어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조사의 형태가 아닌 서술어의 의미특성에 따라 문장성분을 설정해야 한다. 예문 (14, 15)의 서술어 ‘되다’는 ‘~이(가)되다/ ~(으)로 되다’의 두 자리 서술어 형태로, 불완전한 서술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얼음이, 얼음으로, 비가, 비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 즉 보어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예문 (16)에서도 알 수 있다. ‘무섭다’는 ‘~이(가) 무섭다’를, ‘다니다’는 ‘~에 다니다’, ‘변하다’는 ‘~(으)로 변하다’의 형태로 밑줄 친 ‘선생님이, 교회에, 야수로’는 문장의 필수성분이 되며 당연히 보어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예문 (14, 가)와 (15, 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위 예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어는 서술어의 의미완성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말로서, 서술어와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서술어의 의미이며, 필수적 구성성분인 보어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도 서술어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보어는 격조사의 형태가 아닌 서술어의 의미특성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성분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보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보어** : 서술어의 부족한 의미를 보충하여 문장의 뜻을 완성시키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적 성분.

위에서 설정한 보어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조사 ‘-이/가’, ‘-에’, ‘-(으)로’, ‘-와/과’ 4가지 유형의 보어를 설정하였는데,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Ⅲ. 보어의 범위 설정과 보격조사의 유형¹¹⁾

3.1. 보어의 범위 설정

우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른 연구서들에서 제시된 보어의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구체적인 보어 설정의 기준을 마련한 논의 중 김민수(1971)에서는 보어와 주어, 부용어, 객어 등과의 비교를 통해 보어 설정의 기준을 세웠다. 그 논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17) 김민수의 보어 설정 기준

- 가. 보어는 보어 없는 술어만으로는 그 술부가 성립되지 못하는 의미상의 특징을 가진다.
- 나. 구문상 뜻의 변함이 없이 어떤 순서로라도 한 요소로 맺어지지 않는 두 요소는 이심적이며 그것은 서로 다른 요소인 주어와 보어이다.
- 다. 보어와 부용어를 분간하는 방법은 그 구문에서 그 말을 빼버렸을 때 그 구문이 의미상 성립되지 않거나 달라졌으면 그 빠진 말은 보어이다.
- 라. 보술관계는 서로 맞바꾸어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데 부용어는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구문과 다른 뜻으로 변한다.
- 마. 보어는 그 체언이나 체언형으로 나타나지만 부용어는 거의 부사나 부용형으로 나타난다.
- 바. 술어에 반드시 요구되는 대상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객어로 구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어로 가정한다.

최형강(2002)¹²⁾은 이러한 김민수(1971)의 보어 설정 기준에서 그 구문에서 그

11) '보격조사의 유형'이란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보격조사의 형태를 의미한다.

12) 최형강(2002)에서 제시한 보어 설정 기준

가. 주어나 목적어는 보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체언+격조사'의 형식만을 보어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 보어와 결합하는 조사는 격조사에 한정한다. 즉, 주제화를 위한 보조사는 보어와 결합하는 조사로 처리하지 않는다.

말을 뺐을 때 의미상 성립되지 않거나 달라졌으면 그 빠진 말은 보어라는 (다)의 규정은 보어와 부용어로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고 했다. 수식을 담당하는 요소이면서도 필수적으로 쓰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략 여부만으로는 그 성분이 보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도 앞서 언급했지만 명백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생략가능성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마)에서 알 수 있듯이, 김민수(1971)는 체언이나 체언형을 보어의 형태로 보고 있다. 이는 (바)에도 나타난다. 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대상 중 ‘무엇을’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어로 본다는 것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대상이 보어라는 뜻인데, 이 대상은 반드시 명사나 명사 형태로 나타난다.

임홍빈·장소원(1995)은 보어 설정을 위한 원리적인 방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8) 임홍빈·장소원의 보어 설정 기준

- 가. 일단 주어나 목적어는 보어에서 제외한다.
- 나.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은 보어가 된다.
- 다. 실제의 쓰임에서 어떤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맥이나 일상적인 전체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성분의 생략이 온전한 구성을 이룰 수 없으면, 문제의 성분은 보어가 된다.
- 라. 용언의 형식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의미의 차이가 있는 다른 구성에서 필요한 성분은 보어가 된다.
- 마. 보어의 설정에는 용언의 의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교적 한정된 부류의 용언이 의미론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도 보어가 될 수 있다.

(다)에 나타나 있듯이,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도 생략가능성은 보어를 판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김민수의 보어 설정 기준과 다른 점은 단문차원에서의 생략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략이라는 것은 생략되

라. 보어 명사구와 결합하는 격조사는 복합 조사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지 않은 완전한 형태를 전제로 하여, 언제든지 그것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는 언어현상이다. 보어는 필수적 성분이지만 텍스트나 화용론의 차원에서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현상을 필수성의 판별기준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단문차원임을 밝혀야 한다. (나)에서 보어는 서술어가 통사적 구성을 이룰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며, (다)에서는 비교적 한정된 부류의 용언이 의미론적으로 요구하는 성분도 보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어는 서술어가 통사적, 의미론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임을 알 수 있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의 ‘명사+-이/가’만을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문법에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의 ‘얼음이’는 보어가 되지만,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얼음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의 필수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사어가 되는 문제점을 낳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동안 많은 연구서에서 지적되어 왔다. 보어에 관련된 많은 논의는 보어의 범위 설정 문제와 관계가 깊은데, 이것은 학교문법에서 규정한 보어의 범위가 너무 협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어의 범위를 확장하면 보어가 안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9) 가. 영식이는 철수를 동생으로 생각한다.

나. 영희는 대구에 산다.

다. 온도가 올라가자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

라.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마. 너 나를 바보로 보는거냐?

바.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다.

사. 할머니가 속이 상했다.

아. 철수가 병이 나다.

자. 아기가 잠이 들다.

차. 미숙이는 겉이 많다.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성분이지만 학교문

법에서는 모두 부사어로 처리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1993)은 이러한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와 달리 상당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문장의 필수 성분을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에 규정함으로써 개념에 어긋난 많은 예외를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보어와 부사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20) 가. 미라는 예쁘게 생겼다.

나. 영호는 잘/못 생겼다.

다. 조카 녀석이 나를 귀찮게 한다.

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마. 숙희를 보자 그는 얼굴이 과랴게/하얗게 질렸다.

바. 민수는 잘 산다더라.

사. 그 책은 넌리 읽힌다.

아. 날씨가 흐려서 산이 멀게 보인다.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문장의 필수성분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보어로 다루지 않는다. 보어는 주어, 목적어와 같이 문장의 필수성분으로서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인 주어, 목적어, 보어는 명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서술어를 수식,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필수적 성분이라 하더라도 부사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로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게’와 같은 부사 형태의 필수 부사어도 모두 보어로 인정하자는 의견이지만, 그럴 경우 보어의 개념에 충실한 문법체계가 될 수는 있어도 형태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학교문법에서 필수 부사어로 규정하고 있는 성분들 중 ‘명사류+조사’ 형태만을 보어의 범위에 넣고, ‘-게’나 ‘-어’와 같은 부사 형태로 필수성을 띄는 성분은 그대로 필수 부사어로 처리한다. 앞장에서 지적했지만, 이와 같은

보어의 범위 설정이 부사어가 필수적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보어의 개념에 충실할 수 있으며, 형태의 경계 없이 복잡했던 필수적 부사어를 정리함으로써 문법 형태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21) 가. 해용이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었다.

나. 해용이는 학교에서 왔다.

위 예문에서 (가)의 밑줄 친 말은 부사어이고, 예문 (나)의 밑줄 친 말은 보어가 된다. 예문 (가)의 ‘먹다’는 행위주와 먹는 대상을 요구하는 서술어이지 처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학교에서’는 서술어로부터 의미역을 배당받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문 (나)의 서술어 ‘왔다’는 의미 완성을 위해 처소를 나타내는 성분을 요구한다. 따라서 (나)의 ‘학교에서’는 의미역을 배당받아 보어가 되는 것이다. 결합하는 조사로 문장성분을 판단하는 것은 쉽고 편리하다. 그러나 보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판별 되어야한다.

이 연구는 보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보어의 범위:** 보어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성분 중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류+조사’ 형태만을 보어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보어의 범위 설정 근거 >

- ①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는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보어로 규정할 수는 없다.
- ② 보어는 서술어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명사나 명사 형태로 나타난다.
- ③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필수성분이 ‘명사’ 형태뿐만 아니라 ‘부사’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명사류+조사’만을 보어로 규정하려는 것은 형태의 명확성과 일관성 때문이다. 즉, 국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 아래에서 설명함으로써 문법체

계에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보어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성분 중, 서술어가 요구하는 ‘명사류+조사’ 형태임을 밝혔다. 따라서 보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으로, 조사 ‘-이/가’, ‘-에’, ‘-(으)로’, ‘-와/과’와 결합하는 명사나 명사구, 명사절이 된다.

3.2. 보격조사의 유형

3.2.1. -이/가

남기심·고영근(1993)에 따르면 보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 명사절을 비롯하여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보격조사는 형태상으로 보편적 주격조사 ‘-이/가’와 차이가 없고, 서술격조사의 부정어인 형용사 ‘아니다’와 동사 ‘되다’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 (22) 가. 너는 애국자가 아니야.
나. 그 사람이 언제 과장이 됐나?
다. 철수는 중학생이 되었다.
라.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위 예문에서 보격조사 ‘-이/가’와 결합한 밑줄 친 말들은 보어이다. 그러나 ‘-이/가’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되다, 아니다’ 뿐만이 아니며, ‘-이/가’와 결합했다고 해서 모두 보어가 되는 것도 아니다.

- (23) 가. 철수는 호랑이가 무섭다.

- 나. 나는 네가 좋다.
- 다. 영희는 그가 싫다.
- 라. 영수가 병이 나다.
- 마. 내가 잡이 들다.
- 바. 그 여자가 애교가 많다.
- 사. 그 꼬마가 욕심이 많다.
- 아. 아기 코끼리가 1톤이 나간다.
- 자. 이사 비용이 100만원이 든다.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문장에서 보어가 된다. 문장의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는 아니지만, 서술어가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아, 자)와 같이 후행 명사구에 수량사가 쓰인 경우에, 서술어는 반드시 ‘-이/가’ 수량 명사구를 요구하므로 보어로 볼 수 있다. 또한 (가, 나, 다)와 같이 느낌형용사가 요구하는 명사구도 보어이다. 남기심·고영근(1993)에 따르면 느낌형용사로서의 ‘좋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주어는 항상 말하는 이 자신이며, 그 좋아하는 대상은 조사 ‘-이/가’를 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느낌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 ‘명사류+이/가’를 보어로 요구한다.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없다’나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등이 무엇임이 틀림없다’의 의미인 ‘맞다’도 ‘-이/가’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는 서술어이다.

- (24) 가. 그 여자가 대학생이 맞다.
 나. 그것이 영희의 것이 맞습니다.
 다. 그 아이가 제 동생이 맞습니다.

위 밑줄 친 말들은 서술어 ‘맞다’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다. 위 예문에서 ‘맞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 기능하지만 한 자리 서술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 말이 맞다.’와 같은 문장에서 서술어 ‘맞다’는 보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강은국(1993)에서 기본 문형의 설정은 술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술어가 되는 단어들의 의미론적 특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맞다’와 같이 의미에 따라 문형이 달라지는 동사류 때문인 것이다. 보격조사 ‘-이/가’와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고 주어와 보어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학자들은 ‘-이/가’ 명사구를 서술절의 주어로 처리하기도 했다.

(25) 가. 우리는 그의 낙제가 걱정이다.

나. 물이 얼음이 되었다.

다. 그는 인정이 많다.

라. 나는 밤이 좋다.

마.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최호철(1995)에서는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을 모두 주어로 보며, 주어를 찾기 위해 ‘어찌(어떠)한 것은 무엇이다’형에서 ‘무엇’을 찾아내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26) 가. 걱정인 것은 그의 낙제이다. / 걱정인 것은 우리이다.

나. 된 것은 얼음이다. / 된 것은 물이다.

다. 많은 것은 인정이다. / 많은 것은 그다.

라. 좋은 것은 밤이다. / 좋은 것은 나다.

마. 아닌 것은 진리다. / 아닌 것은 그것이다.

최호철(1995)에 따르면 위 예문 (26)에서 왼쪽의 것이 오른쪽 것보다는 우리의 직관에 자연스럽게 안겨오며, 예문 (25)의 밑줄 친 말들은 모두 주어라 보고, 문장 첫머리의 ‘-이/가’형은 서술어의 직접적인 주어가 아니라고 하였다. 최호철(1995)에 의하면 문장 ‘-이 -이 서술어’형은 [-이 [-이 서술어]] 로 분석되고 앞의 ‘-이’나 뒤의 ‘-이’ 모두 주어로 판단했다. 그러면 뒤의 ‘-이’는 서술어의 직접적인 주어가 되고, [-이 서술어] 는 앞의 ‘-이’를 주어로 하는 서술 구절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별법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어찌(어떠)한 것은 무엇이다’형에 모든 예문을 적용시키면 위 예문과 같은 결론만이 나온다. 왼쪽의 것이 오른쪽의 것보다 직관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이

유는 ‘-이/가’ 명사구가 주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어가 주어보다 서술어와 더 밀접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되다, 아니다’ 앞에 놓이는 명사구도 주어로 처리하면 논항으로서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보어를 상정하는 것보다 기술이 간편해지고 성분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조사가 쓰인 성분이라도 두 성분이 서술어와 맺는 관계가 다르고, 문장 내에서의 쓰임도 다르다면 이들을 동일한 성분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주어와 보어가 동일한 조사를 취하지만 서술어와 맺는 관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주어와 보어로 처리하는 것이다.

- (27) 가. 호랑이가 힘이 세다.
 나.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다.
 다. 소녀가 젓가슴이 부풀다.
 라. 임금이 마음이 내키다.
 마. 터가 기운이 다되다.

2장에서 논의되었지만,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가 이른바 분리불가분의 관계인 것은 이중주어가 되며, 후행 명사구가 선행 명사구의 신체의 일부나 속성을 나타낸다. 위 예문은 아래와 같이 변형이 가능하다.

- (28) 가. 호랑이의 힘이 세다.
 나. 할아버지의 고집이 세다.
 다. 소녀의 젓가슴이 부풀다.
 라. 임금의 마음이 내키다.
 마. 터의 기운이 다되다.

박진호(1994)에서는 ‘철수가 손이 크다.’에서 ‘손’은 신체 부위 명사로서 의미상 소유주 논항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철수의 손이 크다.’로 변형가능하며 ‘손이’는 주어가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사 ‘-이/가’는 보격조사의 한 유형임을 밝혔다. 몇몇

연구서에서 ‘명사류+-이/가’는 이중주어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보어 구문과 이중주어 구문은 구조상 명백히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중주어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학교문법에서 ‘-이/가’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되다’와 ‘아니다’ 두 가지 뿐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되다’와 ‘아니다’를 포함한 많은 서술어들이 보어를 요구한다고 본다. ‘명사류+-이/가’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9) ‘명사류+-이/가’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되다, 아니다, 좋다, 싫다, 있다, 없다, 무섭다, 모자라다, 맞다, (병이)나다, (무게가) 나가다, (잠이, 병이) 들다¹, (시간, 비용이) 들다², (수치가) 넘다 등.

3.2.2. -에

학교문법을 비롯한 많은 문법서에서 ‘-에’ 명사구는 부사어나 필수적 부사어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필수적 부사어로 논의되고 있는 ‘-에’ 명사구를 보어로 다루고자 한다. 보격조사 ‘-에’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소 의미를 비롯하여 속성 판단의 근거, 비교 대상, 정서적 반응의 자극, 원인, 이유, 시간, 시기, 대상, 지위, 방향, 근원 등이다.

- (30) 가. 김 군은 무역회사에 다닌다.
- 가'. 김 군은 무역회사를 다닌다.
- 나. 철수는 학교에 간다.
- 나'. 철수는 학교를 간다.
- 다. 그녀의 얼굴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 라. 매력과 유혹은 절정에 달했다.
- 마. 김 씨는 복권 당첨으로 돈방석에 앉았다.
- 바. 그 사람은 대학 강단에 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사. 경찰은 이날부터 지역별로 본격적인 경비 업무에 들어갔다.

위 문장에 나타난 ‘명사류+-에’ 형태의 보어는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와 (나)의 서술어는 동사의 이동성이 중심이 되는 이동 동사로서, ‘명사류+-에’를 반드시 요구한다. 이동 동사의 경우 ‘-에’ 명사구는 ‘-을/를’ 명사구로 교체될 수 있는 특성을 보이며, 생략했을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이동 동사의 경우 ‘-에’ 명사구는 보어로 볼 수 있다. (다)~(바)와 같은 언어적 표현, 관용적 표현에 쓰인 ‘-에’ 명사구는 생략되기 어려운 것으로 필수적인 성분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눈에 띄다, 귀에 설다, 입에 쓰다, 감상에 빠지다, 도전에 응하다, 초대에 응하다, 요구에 응하다, 눈에 들다, 마음에 들다, 함정에 빠뜨리다’ 등의 표현은 모두 보어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최형강(2002)에 따르면 ‘-에’ 명사구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의 수는 상당히 많으나, 어디까지를 보어로 처리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고 하였다. 언어인가 관용 표현인가 혹은 자유 결합인가 하는 문제는 직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31) 가. 영수는 뜨거운 물에 데었다.
나. 나는 엄마에게 혼이 났다.
다. 영호는 나무에 기어올랐다.
라. 그는 상관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에’ 보어가 ‘-에게’ 보어로 교체되는 경우, ‘-에’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무정물이고 ‘-에게’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유정물이다. 유정물이나 무정물이나에 따라 ‘-에게’ 보어와 ‘-에’ 보어로 쓰인다는 것은 ‘-에게’ 보어와 ‘-에’ 보어가 상보적 분포를 보임을 의미한다.¹³⁾

13) 최형강(2004)에서 ‘-에’, ‘-에게’ 보어는 ‘끌러가다, 끌러오다’의 경우에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고, ‘-에게’ 보어와 ‘-에’ 보어가 함께 쓰이는 동사라고 했다.

예) · 포졸에게 관아에 끌러가다.
· 나는 친구에게 이 곳에 끌러온 것이다.

- (32) 가. 묻다: 행인이 뉘게 대하여 길을 묻는다.
 나. 공급받다: 작업복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받는다.
 다. 깊다: 그가 학문에 조예가 깊다.
 라. 밀리다: 바위가 지레에 밀린다.
 마. 밝다: 길잡이가 지리에 밝다.
 바. 불과하다: 돈이 시간에 불과하다.
 사. 드리다: 복숭아를 따시여 할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아. 시비다: 누가 내게 시비다.
 자. 보선이 한복에 어울린다.

위 예문의 ‘-에’ 명사구는 최호철(1995)에서 모두 보어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가다, 오다’와 같은 일부 이동 동사는 부사어에 가깝다고 하였다. 최호철(1995)에서 문장 성분상의 의미·기능은 명사가 아닌 ‘-에’가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장 성분의 의미·기능은 ‘-에’의 의미·기능을 따라 ‘위치’로 하고, ‘시간, 원인, 처소’ 등의 분류는 ‘위치’의 하위분류로 하였다. 따라서 ‘-에’형은 그것이 서술어와 맺는 관계에서 단순한 한정어 관계가 아니라 명사형으로서 보충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필수적인가 수의적인가에 관계없이 보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정순(2001)에서도 ‘-에’형을 보격조사로 다루고 있다. ‘-에’가 격조사로 나타난 문장의 서술 구조를 두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과 결합하는 동사를 분류했다. 어휘 의미 구조가 통사 구조나 서술 구조로 실현되면 처소를 나타내는 논항은 문장에서 보어가 되고 경로 함수는 ‘-에’로 실현된다고 했다.

- (33) 가. 바람에 옷이 날린다.
 나. 바람이 옷을 날린다.

이홍식(2000)에서 위 예문의 ‘-에’ 성분은 보어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가)의 ‘바람에’는 원인의 의미를 표현하고, 서술어 ‘날리다’는 피동

사이므로 (가) 문장은 피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의 타동문과 대응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타동문의 주어는 의지를 가진 유정물인데 ‘바람’은 유정물이라고 할 수 없어서 (나) 문장은 일반적인 타동문과는 구별이 된다. 그러나 구성 자체의 특성은 타동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에’ 성분이 생략된 문장이 성립한다고 했다.

(33') 가. 저절로 옷이 날린다.

위와 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도 ‘바람에’가 보어가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여, ‘바람에’를 부사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도 ‘바람에’를 부사어로 보는 입장은 같다. 그러나 ‘바람에’가 ‘저절로’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바람에’의 생략이 자연스러운 것은 서술어 ‘날리다’의 의미에서 ‘바람에 날리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34) 가. 나는 바람 소리에 놀랐다.

나. 칠수는 비싼 책값에 어리둥절했다.

이홍식(2000)에서 원인의 의미는 사태와 사태의 관계로 파악되며 이는 거의 모든 사태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술어의 보어로 인정하기 어렵지만 정서의 경우는 자극이 중요한 관련항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태와 사태의 관련이라기보다는 서술어의 성립에 대한 요건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보어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 글에서 역시 심리 동사에 필요한 ‘-에’ 명사구를 보어로 인정한다. 최형강(2002)에서는 ‘-을/를’과 교체할 수 있는 ‘-에’ 명사구는 논항의 자격을 충분히 획득한다고 하였다.

(35) 가. 나는 기차에 탔다.

가'. 나는 기차를 탔다.

나. 우리는 버스에 탑승했다.

- 나'. *우리는 버스를 탑승했다.
 다. 영수는 학교에 갔다.
 다'. 영수는 학교를 갔다.
 라. 철수는 형을 뒤따라 군대에 갔다.
 마. 거센 반발이 이 결정에 뒤따랐다.

탈 것에 몸을 싣는 ‘타다, 합승하다’는 ‘-을/를’ 교체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는데, 같은 의미의 ‘승선하다, 탑승하다’의 경우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타다, 합승하다’는 타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승선하다, 탑승하다’는 자동사로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을/를’ 명사구는 논항이 되며, 이러한 ‘-을/를’과 교체가 이루어지는 ‘-에’ 보어도 논항이 된다는 말이다. 유현경·이선희(1996)에서 조사 ‘-에, -에서, -로’가 ‘-를’로 교체되는 동사의 대부분은 이동 동사라고 하였다. 이동 동사의 경우에 처소를 나타내는 ‘NP-에/에서’는 동사에 의해 일정한 의미역을 할당받는 것으로 주어가 의도성을 갖는 경우 ‘를’을 취하고 주어를 단순히 움직임이 있는 대상으로만 볼 경우에는 ‘-에/에서’를 취한다고 했다. 또한 동사 ‘가다’는 모든 사전에 자동사로 올라 있지만, 장소 보어의 ‘-에/에서’, ‘-로’ 등의 조사가 쉽게 ‘-를’로 교체되어 타동사처럼 쓰이는데 이는 목적격을 취하지 못하는 조사들과 구분되는 특성이라고 했다.

- (36) 가. 나는 비명 소리에 뒤를 보았다.
 나.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술을 마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논문은 현행 학교문법에서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명사구가 전부가 필수적 문장 성분인 보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어에 따라 보어가 되기도 하고 부사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위 예문의 ‘-에’ 명사구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성분이 아니다. 서술어 ‘보다’와 ‘마시다’는 보는 대상과 마시는 대상만을 요구할 뿐이다. 따라서 위 예문의 밑줄 친 말들은 보

어가 아닌 부사어가 된다.

‘명사류+-에’ 형태를 보어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7) ‘명사류 + -에’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가다, 감사하다, 걸리다, 기대다, 깊다, 나가다, 나타나다, 날다, 내리다, 녹다, 능하다, 늦다, 다니다, 다다르다, 달다, 달리다, 달하다, 덩비다, 도착하다, 들다, 들어가다, 맞다, 머물다, 멈추다, 모이다, 묻히다, 미치다, 밀리다, 밟다, 반대이다, 반짝이다, 받히다, 부당하다, 부딪혔다, 불과하다, 붙다, 비슷하다, 빠지다, 사라지다, 선하다, 솟다, 스미다, 어둡다, 었다, 열성이다, 오다, 오르다, 의지하다, 잡히다, 적당하다, 적합하다, 접어들다, 좋다, 차이다, 채워지다, 칠해지다, 타다, 해롭다, 가꾸다, 걸다, 걸치다, 겪다, 결합하다, 공개하다, 그리다, 기대다, 끼얹다, 넣다, 놓다, 담다, 대다, 덧붙다, 두다, 따르다, 뚫다, 밝히다, 붓다, 붙이다, 새기다, 싣다, 올려놓다, 올리다, 입다, 잡다, 잡히다, 적재하다, 칠하다 등.

3.2.3. -(으)로

성광수(1974)는 ‘명사+- (으)로’ 형태를 보어로 설정하였다.

(38) 가. 올챙이가 개구리로 된다.
나. 영자가 밥을 죽으로 만들었다.

(38') 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된다.
나. 영자가 밥을 죽을 만들었다.

성광수(1974)에서 위 예문 (38가, 나) 문장의 보어는 수의적인 주어화나 목적어화를 겪어 (38'가, 나)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수의적인 주어화나 목적어화를 겪은 ‘개구리가’와 ‘죽을’은 본래부터 주어나 목적어인 ‘올챙이가’와 ‘밥을’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예문 (38)과 (38')의 밑줄 친 말들은 같은 성분으로 다룬다. 결합하는 격조사로 인하여 형

태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실상 의미와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다. 즉, ‘개구리가’ 역시 보어이며, 서술어 ‘되다’는 ‘-이/가’ 명사구뿐만 아니라 ‘-로’ 명사구도 요구할 수 있다. 예문 (38나)의 ‘죽을’에 대한 해석은 정유진(1995)에도 나타난다. ‘죽을’은 동사의 타동성에 의해 요구되는 목적어가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죽으로’를 수의적으로 대상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 역시 ‘죽을’을 목적어로 보지 않는다. 서술어 ‘만들다’가 요구하는 대상은 ‘밥’이지 ‘죽’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문법에서 ‘개구리로’와 ‘죽으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서술어의 의미를 한정하여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인데, ‘개구리로’와 ‘죽으로’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문장에서 주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어로 봐야 한다. 명사류와 결합하는 조사 ‘-(으)로’는 행위나 결과물을 가능하게 하는 재료, 지향점, 방향, 도구, 방편, 변성, 자격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 (39) 가. 아이들은 비행기를 종이로 만들었다. (재료)
 나. 영이는 이번 국어 시험의 목표를 백점으로 잡았다. (도달점)
 다. 나는 도서관으로 갔다. (방향)
 라. 어머니는 칼로 생선을 자르신다. (도구)
 마. 철수는 버스로 학교에 간다. (방편)
 바.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다. (변성)
 사. 도민들이 그를 도지사로 뽑았다. (자격)

(가)의 ‘종이로’는 재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서술어가 의미완성을 위해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이다. 동일한 조사가 결합한 예문 (38나)의 ‘죽으로’는 변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39가)의 ‘종이로’에 비해 필수성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들이 종이로 비행기를 만든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성분으로 여겨지는 것일 뿐,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연구에서 서술어 ‘만들다’는 세 자리 서술어로 사용될 때 <-이/가 -을/를 -(으)로 만들다>의 구조로 본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 ‘-(으)로’는 지향점, 방향, 경로, 속성, 변성, 재료, 원인 등을 나타낸

다고 보고 이 때 ‘NP-로’는 필수 논항이라 하였다. 남기심·고영근(1993)에서 ‘NP-로’가 필수적 논항으로 쓰이는 경우는 자동사 문형인 「NP-가 NP-로 V」와 타동사 문형인 「NP-가 NP-를 NP-로 V」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문장의 ‘중이로’는 필수적 논항이 되는데, 학교문법에서는 보격조사가 아닌 부사격 조사와 결합하기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로 다루고 있다. 이홍식(2000)은 ‘-로’ 보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하나는 동작에 대한 재료나, 도구, 방편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결과나 목적의 의미이다. 물론 엄밀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타동문의 경우에는 ‘-로’ 보어가 목적어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타동문에서 목적어 앞에 오는 것은 대략 방편과 관련된 의미이고 목적어 뒤에 나타난 것은 목적어의 변화나 이동의 결과 또는 목표로 해석했다.¹⁴⁾ 이홍식(2000)에서 ‘-로’ 성분은 재료를 표시하는 경우와 목적어의 변화 결과나 이동 목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만 보어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사의 의미에 따라 필수성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문법체계는 더욱 난해하고 복잡해진다. (나)의 ‘백점으로’는 도달점의 의미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이홍식(2000)에서는 보어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잡다’는 <-이/가 -을/를 -(으)로> 구조로 ‘명사류+-(으)로’를 보어로 요구하는 서술어로 본다. (다)의 ‘도서관으로’는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어이다. 많은 문법서들에서 이동 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로’ 명사구는 보어로 논의되고 있다. 최형강(2002)에서 ‘가다’류의 동사는 ‘-로’ 명사구를 요구하는데, ‘-로’ 명사구는 격조사 ‘-에’와 교체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 (40) 가. 병희는 학교에 갔다.
 나. 병희는 학교로 갔다.
 다. *병희는 학교 방향에 갔다.

14) 이홍식(2000)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예로 들었다.
 · 철수는 영화를 바보로 생각한다. (추상적 의미의 도달점)
 · 철수는 나무를 책상으로 만들었다. (도달점)
 · 철수는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다. (재료)
 · 철수는 톱으로 나무를 베었다. (도구)

라. 병희는 학교 방향으로 갔다.

‘-로’ 명사구는 ‘-에’ 명사구로 교체되어도 이상이 없으나, 처소가 아닌 방향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로’ 명사구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이홍식(2000)에서 ‘-로’ 조사가 결합한 명사구는 대개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며, 조사 자체가 방향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라)의 조사 ‘-로’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구이다. 이홍식(2000)에서 도구를 나타내는 ‘-로’ 성분은 필수적인 분포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칼로’를 생략할 경우 ‘어머니는 생선을 자르신다.’와 같이 성립에 이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술어 ‘자르다’를 통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떠올리게 된다. 즉, 경험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어색하지 않은 성분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39, 마) 문장은 아래와 같이 사용될 수도 있다.

마. 철수는 버스로 학교로 간다.

위 문장의 서술어 ‘간다’는 ‘-로’ 명사구를 보어로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로’와 ‘학교로’ 모두가 논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술어 ‘간다’가 논항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처소를 나타내는 ‘학교로’이지 방향을 나타내는 ‘버스로’가 될 수 없다. 최형강(2002)에 따르면 격조사 ‘-에’와 ‘-로’가 교체되는 명사구는 보어가 된다고 했는데, ‘버스로’는 ‘버스에’로 교체가 불가능하나 ‘학교로’는 ‘학교에’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보어라고 할 수 있다. (바)의 서술어 ‘변하다’는 변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 명사구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최형강(2002)은 ‘-로’ 보어를 요구하는 동사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변하다’는 ‘되다’류의 동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되다, 변하다, 변화하다, 만들다’ 등의 동사에는 ‘변화’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형강(2002)에서 ‘변하다’, ‘변화하다’는 ‘-로’ 보어가 다른 격조사로 교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동사이다. 다른 격조사로의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동사에 의해 강한 격 지배를 받는다고 하였다. 이 논문은 (사)의 ‘도지사로’를 보어로 다룬다. 서술어 ‘뽑다’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 명사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

이다. 최형강(2002)은 ‘뽑다’류에 포함된 서술어들은 ‘NP이 NP를 NP로 V’의 문형을 가지는 것인데, 이 때의 ‘NP로’는 ‘NP에’와 교체될 수 있어서, 문장의 논항이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적용시키면 ‘도민들이 그를 도지사에 뽑았다.’가 되는데, 성립에 이상이 없는 듯하다.

(41) 되다: 로동은 자기자신과 연민의 행복의 원천으로,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되었다.

되어지다: 밥이 쌀로 되어진다.

만들다: 기계가 얼음을 물로 만든다.

몽치다: 둘이 하나로 몽친다.

바뀌다: 산이 바다로 바뀐다.

변하다: 낮이 밤으로 변한다.

뽑다: 회원이 그를 회장으로 뽑는다.

삼다: 실패한 경험을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위 문장은 최호철(1995)에서 사용된 예문으로, ‘명사류+-(-)로’를 보어로 요구하는 서술어가 제시되었다. 최호철(1995)은 ‘-로’형을 보격조사로 설정하고 방편어라고 했다. 문장 성분상의 의미·기능은 체언이 아닌 ‘-로’가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장 성분의 의미·기능은 ‘-로’의 의미·기능을 따라 ‘방편’으로 하고, ‘도구, 수단, 자격, 처소, 재료, 정도’ 등의 분류는 ‘방편’의 하위분류로 했다. 따라서 ‘-로’형은 그것이 서술어와 맺는 관계에서 단순한 한정어 관계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보충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필수적인가 수의적인가에 관계 없이 보어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조사 ‘-(으)로’가 보격조사의 한 유형임을 밝혔다. 학교문법에서 ‘명사류+-(-)로’는 부사어지만 이 연구에서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인 보어로 설정하였다. ‘명사류+-(-)로’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명사류+-(-)로’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가다, 다가가다, 다가서다, 다가오다, 단합하다, 달리다, 되다, 들어가다, 뛰다, 뛰

어들다, 모이다, 변하다, 보다, 비키다, 섞다, 솟다, 스미다, 오르다, 옴다, 접어들다, 향하다, 흐르다, 가꾸다, 간주하다, 건네다, 걸치다, 고치다, 교체하다, 구성하다, 굽다, 그리다, 깎다, 끼었다, 나누다, 느끼다, 늘리다, 늘어나다, 던지다, 돌리다, 만들다, 바꾸다, 보이다, 부르다, 붙이다, 뽑다, 사다, 삼다, 생각하다, 쌓다, 알다, 여기다, 잡다, 적재하다, 짓다, 쪼개다, 채우다, 치다, 칠하다, 틀어막다, 파다, 가다, 나가다 등

3.2.4. -와/과

격조사 ‘-와/과’는 학교문법에서 부사격조사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보격조사로 논의하고자 한다.

보격조사로서 ‘-와/과’를 다룬 논의는 성광수(1974), 임홍빈·장소원(1995), 이홍식(2000), 조경순(2001), 최형강(2002)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광수(1974)는 ‘딸이 어머니와 닮았다.’에서 ‘어머니와’를 보어 명사구로 규정했으며, 임홍빈·장소원(1995)에서 ‘-와/과’ 명사구는 용언이 의미론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논의는 둘 이상의 대상이 의미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닮다, 같다, 다르다’ 등의 서술어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홍식(2000)에서는 서술어가 ‘-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이것이 다른 보어와의 차이점이라고 하였다. ‘-와’ 보어는 서술어의 의미론이 둘 이상의 대상이 참여하는 사태를 기술할 때 이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나타나는 것으로, 복수의 주어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와’ 보어 자체가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 (43) 가. 칠수는 나와 싸웠다.
 나. 칠수는 영희와 닮았다.
 다. 칠수는 나를 영수와 비교했다.
 라. 연금술사가 백금을 산과 섞었다.

- (43') 가. 철수와 나는 싸웠다.
 나. 영희와 철수는 다투었다.
 다. 철수는 영수와 나를 비교했다.
 라. 연금술사가 산과 백금을 섞었다.

- (43") 가. 우리는 싸웠다.
 나. 우리는 다투었다.
 다. 철수는 우리를 비교했다.
 라. 연금술사가 그것들을 섞었다.

예문 (43)은 (43')와 (43")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의미론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충족되어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그러나 '-와' 보어를 복수의 주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여 예문 (43)의 밑줄 친 성분을 필수적이지 않은 요소로 다룰 수는 없다. '싸우다, 다투다, 비교하다, 섞다'는 단수 주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와' 명사구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와' 명사구는 보어가 된다. 양정석(1995)은 대칭 구문이나 상호 구문은 한 자리 구문에서 쓰일 때 명사구 접속뿐만 아니라 복수인 주어를 허용하며¹⁵⁾, 두 자리 구문에서는 단수 주어가 가능한데 이러한 단수 주어의 구문에서 'NP와'는 생략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최형강(2002)에서도 서술어가 '-와/과' 보어를 요구하는 것과 복수의 주어를 요구하는 것은 그 동사가 요구하는 두 가지 통사 구조라고 하면서, '-와/과' 보어의 필수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홍식(2000)은 서술어의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와' 성분과 달리 수의적인 '-와' 성분이 있다고 하였다. 의미상으로 필수적인 '-와' 성분과 수의적인 '-와' 성분은 유사하지만, 서술어의 차이에 의해 필수성의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와' 조사 자체만으로 어떤 성분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서술어의 특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 논문도 격조사 '-와'와 결합하는 명사구 자체를 무조건 보어로 다루고 있

15) 양정석(1995)에서 대칭구문은 서술어가 되는 대칭 동사들의 특징에 따라 무리지을 수 있으며, 상호 구문은 '서로'의 필수적 실현과 일단의 동사들(상호동사)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특정짓는다고 제시되었다.

지 않다.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와’와 수의적인 ‘-와’로 구별한다. 다만 이흥식(2000)과 다른 점은 필수적인 ‘-와’를 보어로, 수의적인 ‘-와’를 부사어로 본다는 것이다. 이흥식(2000)에서는 보어와 보어가 아닌 성분이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어가 아닌 것을 부사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형강(2002)에서는 ‘-와/과’ 명사구와 결합하는 격조사가 다른 조사, 특히 격조사와 교체가 가능한 경우를 통해 ‘-와/과’ 명사구가 수의적인 성분이 아니라 동사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임을 밝혔다. 다른 표지를 가진 논항과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논항에 대응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형강(2002)에서 대칭 서술어¹⁶⁾는 ‘-와/과’ 보어를 요구한다고 했다. 대칭 서술어는 ‘와/과’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로, ‘-을/를’ 등의 다른 격조사와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현경·이선희(1996)에서도 대칭 동사는 두 개체간의 상호성을 전제로 하는데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두 개체간의 상호성을 배제할 것으로 해석 가능한 일부 대칭 동사에 한해서 ‘NP-와’는 ‘NP-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형강(2004)에서는 ‘-을/를’ 명사구가 ‘-와/과’ 명사구와 교체되기 위해서는 그 동사가 기본적으로 ‘-을/를’ 명사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적어도 ‘-와/과’와 ‘-을/를’이 교체를 보이는 동사는 타동사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와/과’ 보어 중에는 ‘대화하다, 데이트하다, 약혼하다’ 등 다른 격조사와 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 서술어가 ‘-와/과’ 보어에 대한 결속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또 최형강(2002)에서는 ‘-을/를’과의 교체가 가능한 경우 보어 표지의 생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웃(과) 가까이하다, 이웃(과) 넘나들다, 엄마(와) 닮다, 친구(와) 대면하다, 백인(과) 마주치다, 애인(과) 마주하다, 친구(와) 만나다, 집주인(과) 맞닥뜨리다, 상담교사(와) 면담하다, 자연(과)? 벗하다, 애인(과) 부둥켜안다, 이웃(과) 사귀다, 아내(와)? 사별하다, 바다(와)

16) 최형강(2002)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칭 서술어에 포함시켰다.

첫째, 대칭 서술어는 ‘-와/과’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둘째, 대칭 서술어는 ‘-와/과’ 보어가 쓰이지 않았을 때는 복수의 주어나 목적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셋째, ‘서로’가 쓰여야 ‘교호성’이 확보되어 ‘-와/과’ 명사구가 쓰이는 경우는 대칭 서술어에 포함하지 않고 이때의 ‘-와/과’ 명사구는 서술어의 보어가 아니다.

접하다’ 등의 예문에 이를 적용하고, ‘벗하다, 사별하다’를 제외하고는 ‘-와/과’의 생략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직관에 의한 것일 뿐,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격조사의 교체는 ‘-와/과’ 보어에 무리 없게 적용이 가능해 보이지만, 보어 표지의 생략 가능성은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조경순(2001)에서도 보격조사의 한 유형으로 ‘-와/과’를 인정하고 있다. ‘-와/과’가 격조사로 나타난 문장의 서술 구조를 제 1 유형 [-이 -와] 과 제 2유형 [-이 -와 -을] 으로 나누고 ‘-와/과’와 결합하는 동사의 목록¹⁷⁾을 제시하였다. 처소나 경로 함수가 격조사 ‘-와’로 실현되는 문장에서 ‘-와’와 결합하는 명사구는 어휘 의미 구조에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논항이며, 이러한 논항의 실현형인 명사구는 문장 성분상 필수 성분인 보어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과 달리 최호철(1995)은 ‘-와’형을 보격 조사가 아닌 대등적 관형어로 다루고 있다.

- (44) 가. 일치되다: 이론이 실험과 일치된다.
 나. 한가지다: 시간이 돈과 한가지다.
 다. 의논하다: 어른이 그 일을 아이와 같이 의논한다.
 라. 공론하다: 왕이 정사를 백성과 공론한다.
 마. 이야기하다: 회장이 회무를 총무와 이야기한다.
 바. 똑같다: 시간이 금과 똑같다.
 사. 마찬가지로: 잠이 쉽과 마찬가지로.
 아. 섞이다: 뉘가 쌀과 섞인다.

위 예문의 ‘-와’형은 그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어라 하기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와’형을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자세히 보면 모두 복수 주어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 ‘-와’형은 주어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므로 그것은 서술

17) 조경순(2001)은 ‘-와’ 결합 동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제 1유형: 같다, 경쟁하다, 결합하다, 결혼하다, 다르다, 닳다, 똑같다, 마주치다, 마찬가지로, 만나다, 맞는다, 싸우다, 어긋나다, 언쟁하다, 연애하다, 정반대이다, 친하다, 한가지다 등.
- 제 2유형: 결다, 논쟁하다, 말하다, 바꾸다, 쌓다, 의논하다, 이야기하다 등.

어와 1차적인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의 주어와 1차적인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다. 국어의 관형 구성을 분석했을 때, ‘-의’형은 [[체언1-의 [체언2-이]]] 형태로 단독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연결 구성의 ‘-와’형은 [[체언1-와] [체언2-이]] 의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게 된다. 최호철(1995)에서는 ‘-와’형을 구성면에서는 대등 구성이라 이름하고, 의미면에서는 주종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와’형을 관형어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관형어와 구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이를 대등적 관형어라 지칭하고, 기존의 관형어는 종속적 관형어로 지칭하였다. 최호철(1995)에서는 ‘-와’형이 서술어가 아닌 주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고 하였는데, ‘-와’형은 서술어가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성분으로 서술어의 필요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주어보다는 서술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명사류+-와/과’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5) ‘명사류+-와/과’ 형태의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

: 연관되다, 마찬가지로, 만나다, 다르다, 닮다, 결합하다, 같다, 경쟁하다, 싸우다, 어긋나다, 친하다, 한가지다, 바꾸다, 의논하다, 이야기하다, 논쟁하다, 혼합하다, 합치다, 접하다, 얽히다, 상반되다, 상응하다, 야합하다 등.

IV. 결론

보어는 문장 구성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논항이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필수적인 주성분 외에도 서술어의 의미를 보완하고, 의미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문장 성분들을 필수적 부사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적 성분이면서 수식 기능을 담당하는 부사어의 기본 규정과 상반되게 필수적 부사어로 처리하기에는 이들 성분의 의미론적 특성이 다양하고, 주요한 성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으로 부족한 의미부분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필수적 문장성분으로 보고, 문장 구성에서 주어나 목적어 외에 서술어가 의미론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논항으로 다루었다. 논의 전개에서는 ‘서술어의 의미가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전제 하에 보어를 살펴보았다. 서술어의 의미적 요구에 의해 실현되는 성분인 보어는 그 일부가 소위 필수적 부사어로 간주되어 왔으며 단문에서의 그 필수성에도 불구하고 부사어로 처리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같은 부사어들의 필수성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가 그 요소를 항상 요구한다는 점에서 보어로서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보어의 범위를 확대하는 관점에서 보어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유형을 밝혔다. 보어의 연구사는 보어를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의 보어 연구는 보어 설정 여부보다는 보어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보어를 연구하는 태도는 조사 중심의 형태론적 특성에 입각한 연구와 동사 중심의 의미·기능론적 특성에 따른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사 중심의 의미·기능론적 특성에 따른 연구가 더 많았다. 이 글의 목적은 보어가 주어, 목적어와 같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보어의 범위 설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보어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다. 한 문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그 문장의 서술어이므로 문장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보어도 서술어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밝혔다.

보어에 관한 논의는 현행 학교문법에서의 보어와 문제점, 필수적 부사어로서

의 보어와 문제점, 이중주어에서의 보어와 문제점, 필수적 부사어 중 ‘명사류+조사’ 구조의 보어와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확장된 보어의 개념을 규정했다. 이 연구에서 보어란 불완전한 용언이 문장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요구하는 논항들 중 주어와 목적어를 제외한 문장의 필수성분이다. 보어의 개념은 기존의 연구서들에서 보어 설정에 긍정적인 견해들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학교문법에서 보어는 동사 ‘되다’와 형용사 ‘아니다’와 같은 불완전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비롯하여 체언 구실을 하는 말에 조사 ‘-이/가’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보어에 속하지 못하는 많은 필수적 성분들이 필수적 부사어 아래에서 논의되고 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가 되는 것이다. 학교문법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체계의 명료화와 단순화를 위해 조사의 형태에만 입각한 나머지 지나치게 협의적 관점에서 보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속 성분인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로 구분하였다.

셋째, ‘되다’, ‘아니다’ 외에 느낌형용사 등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더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두 서술어와 결합하는 체언만 보어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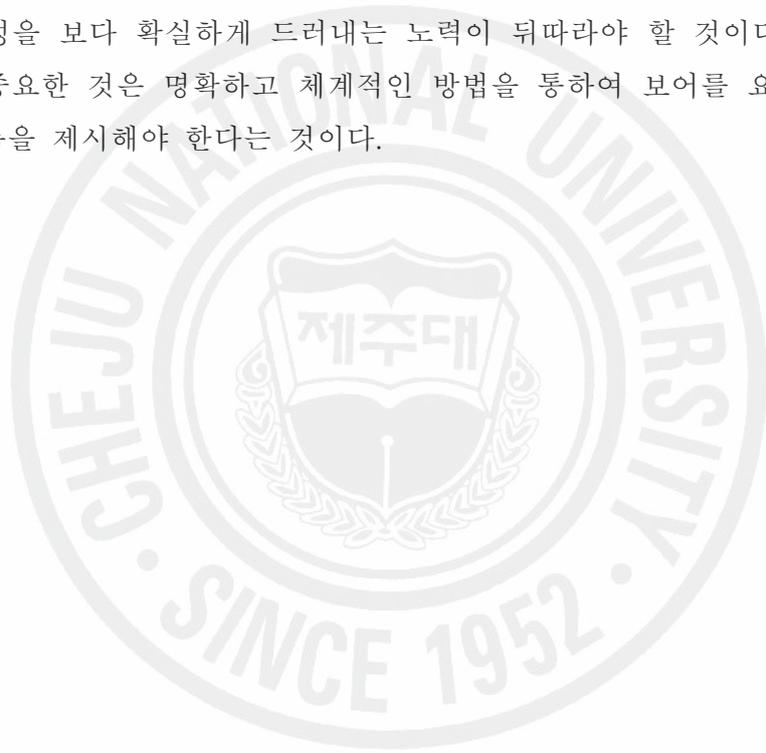
넷째,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다양함을 인정하지만, 보격조사는 여전히 ‘-이/가’ 만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은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어를 논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필수적 부사어까지를 모두 보어로 보자는 견해이다. 필수적 부사어를 모두 보어로 설정하는 연구서들에서 필수성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은 생략가능성이다. 그러나 생략현상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견해의 또 다른 문제점은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의 기능과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를 모두 보어로 설정하게 되면 보어는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와 그 형태

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보어 설정을 부정하고 ‘-이/가’와 결합하는 명사구를 이중주어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조사를 가진 보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어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어는 주부에 속하고, 보어는 술부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성분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며, 중복된 주어는 동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어와 보어는 이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조적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광의의 관점에서 보어를 논의한 또 다른 견해는 필수적 부사어 중 ‘명사류+조사’ 형태를 모두 보어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많은 연구서들에서 논의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보어의 형태를 ‘명사류’에만 국한시키는 이유는 보어와 더불어 문장의 필수성분인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형태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서이다. 즉, 국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 아래에서 설명함으로써 문법체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문제점은 보격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중첩으로 인해 서술어의 의미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며 문장성분을 판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수의적, 필수적으로 나뉘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어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확장된 보어의 개념을 규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어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보어는 주어, 목적어를 제외한 성분 중,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명사류+조사’ 형태만을 보어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필수적 부사어 중 ‘명사류’만을 보어로 규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명사 형태의 필수적 부사어와 부사형태의 필수적 부사어는 그 구조가 다르며,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은 문장 안에서 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어는 주어, 목적어와 같이 문장의 주성분으로 주체와 대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명사류+조사’ 형태를 보어로 보는 이유는 다른 주성분과 그 형태를 동일시하여 문법체계의 안정성과 조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설정한 보어의 범위를 바탕으로 보격조사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사에 격조사가 결합한 말이 무조건 보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술어로부터 의미역을 배당받으면 보어가 되지
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의적 성분인 부사어가 된다. 학교문법에서는 부사
격조사로 처리하고 있는 ‘-에’, ‘-(으)로’, ‘-와/과’를 보격조사로 다루었다. 따라
서 보격조사는 ‘-이/가’, ‘-에’, ‘-(으)로’, ‘-와/과’ 4가지 유형이 되는 것이다. 명
사가 이러한 보격조사와 결합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보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보어가 되거나 부사어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조사가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술어를 함께 제시하였다.

보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보완 작업을 통해 보
어의 개념과 특성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보어를 요구하
는 서술어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명윤(1996), “이중주격구문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한국어학4.
- 강은국(1993), 「조선어 문형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 고광주(1995), “국어의 비대격 구문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고동혁(1992), 「조선어 문형 개론」, 사회과학출판사.
- 고석주(1996), 「‘있다’ 구문에 대한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1995), 「최현배의 학문과 사상」, 집문당.
- 고창수(1992), 「국어의 격이론」, 홍익어문, 홍익어문연구회.
- 김경훈(1996), 「필수적 부사어와 임의적 부사어」, 서울산업대학교 논문집.
- 김기혁(1995), 「국어 문법 연구」, 박이정.
- 김근수(1947), 「중학 국문법책」, 문교당출판부.
- 김동식(1993), “현대국어 동사의 통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상대(1995), “문장 성분론과 관련된 몇 문제에 대하여”, 이인섭 교수 환갑기념 논문집.
- 김세중(1994), “국어 심리술어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곤(1985), “중주어론에 대한 고찰”, 박병채 박사 환력기념논문총.
- 김영희(1985), “주어올리기”, 국어학 14, 국어학회.
-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 김용하(1998), “한국어 격과 어순의 최소주의 문법”,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 김일웅(1986), 「생략의 유형」,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김정남(1998), “동사와 문장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김진우(1966), 「기본문형의 설정」, 어학연구 2:1, 서울대 어학연구소.
- 남기심 외 편(1975), 「현대국어문법」, 계명대 출판부.
- 남기심(1988), “이중주어문 재고”, 조선학보 126.
- 남기심(1986), 「서술어 설정은 타당한가」, 유목상 외 편,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남기심(1993), 「국어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광학술자료.

남기심(1996), 「국어문법의 탐구1」, 태학사.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윤진(1997), “현대국어 조사에 대한 개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류구상(1995), “국어 격조사에 대하여”, 한국어학 2, 한국어학연구회.

류구상 외(2001), 「한국어의 목적어」, 월인.

민현식(1993), “성분론의 문제점에 관하여”, 선청어문 21, 서울대 국어교육과.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역락.

민순득(2003), “학교 문법에서의 필수적 부사어 설정 문제”, 세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민희(1987), “한국어의 중주어문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순(1986), 「고교문법에서의 보어와 보문처리문제」,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박영순(2005), 「한국어 의미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박정섭(1992), 「중주어와 중목적어」, 생성문법연구2-2, 한국문학회.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 구조”, 국어연구123, 서울대 국어연구회.

박철우(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의 판별 기준”, 언어학 34, 한국어학회.

백주현(1982), “국어 보어에 대한 연구 I”, 새국어교육 35, 한국국어교육학회.

백주현(1983), “국어 보어에 대한 연구 II”, 새국어교육 37, 한국국어교육학회.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선우용(1994), “국어 조사 ‘이/가’, ‘을/를’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24, 서울대 국어 연구회.

성광수(1971), “국어문형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13, 고려대.

성광수(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의 중출 현상에 대하여”, 문법연구 1, 문법 연구회.

성광수(1979), “국어 보어 설정에 대한 재고”, 국어국문학 64, 국어국문학회.

선지성(2001), “필수부사어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송승복(1995), 「국어의 논항구조 연구」, 보고서.

송석중(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지식산업사.

신연주(1989), “국어 보어 설정의 기준과 한계”,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동휘(1994), 「문법론」, 한국문화사.

양정석(1987), “이중주어문과 이중목적어문에 대하여”, 연세어문 20.

양정석(1992), “한국어 동사의 어휘구조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양정석(1995),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박이정.
 우형식(1994), “동사의 결합가 기술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한글 225, 한글학회.
 우형식(1996), “국어에서의 보충어 범위”, 배달말학회 21, 배달말학회.
 유규상(1947), “국어 보어의 문”, 송전어문학 3집.
 유동석(1984),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유목상(1966), “국어 보어에 관한 고찰”, 중앙대 문과대 학보.
 유형선(1998), “보어에 대한 일고”, 한국어학 6, 한국어학회.
 유현경·이선희(1996), “격조사 교체와 의미역”, 국어문법의 탐구 III, 태학사.
 윤미영(2001), “국어 보어의 범위 연구-학교문법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 논문.
 윤평현(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김희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이광정(1980), “한국어의 보어설정과 그 문형연구”, 국어교육 37,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이광정(1980), “한국어 보어 설정과 그 문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이홍식(2000),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장석진(1989), 「한·영 동사의 하위범주화와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유진(1995), “국어의 보어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조경순(2001), “현대 국어 보어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조환근(1975), “국어문장구조에 관한 통사론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최창렬(1983), 「한국어의 의미 구조」, 한신문화사.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최형강(2002), “보어의 격조사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형기(1996), 「국어 보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최호철(1995), “국어의 보어에 대하여”, 한국어학2, 한국어학회.
 한 길(1980), “한국어의 기본문형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허 응(1970),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Abstract>

**The study on the scope demarcation and patterns of
Korean language complements**

Ko, Hyun-Hi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ighlight weaknesses in current school grammar regarding complements, demarcate the boundaries of complements to expand their scope and look into the forms of complementary case particles. To this end, a predicate-centered argument was developed from a syntactic and semantic point of view on the assumption that complements are grammatical components required by the predicate that are necessary for a sentence's syntactic and semantic perfection. Therefore, complements are essential elements of sentences without which a sentence becomes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imperfect.

In Chapter 2, a study was conducted on various opinions regarding complements, their scope in school grammar and related problems. School grammar defines complements in excessively narrow terms, limiting complements to particle forms in order to make the grammatical system clear and simple. It divides adverbial phrases, dependent components into imperative and voluntary adverbial phrases. Furthermore, school grammar acknowledges that there are more predicates that require complements. For example, predicates including adjectives of feeling require complements, but grammatical rules qualify this by saying that only nouns combined with the two predicates ('become' and 'be not') can be complements. Next, an analysis was conducted in which all imperative adverbial phrases were

classified as complements regardless of their form, framing complements from the broadest standpoint. The defect of this framework is that even though the function and role of noun-form imperative adverbial phrase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dverb-form imperative phrases, both of them are designated as complements. In addition, subjects and objects, the same main components, exhibit mutually different forms. Considering complements as double subjects denies complements, but the concept of complements is indispensable for clar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predicates that require complements with specific particles as arguments. Also there are structural difficulties which arise when the subject and complement are treated the same (the double subject framework), since the former belongs to the complete subject while the latter is included in the complete predicate. Repeated subjects share a common connection to a sentence whereas subjects and complements don't share such a common link. As a result,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two constructs are different as well. According to one model describing 'noun group+particle' forms as complements, only the noun form of imperative adverbial phrases is able to become a complement. A complication arises from such a model, however. Semantic studies of predicates should be carried out on individual predicates and grammatical components should be identified by the overlap of complementary and adverbial case particles. This is the point at issue. Even if the model defines comple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another problem still gets in the way- adverbial phrases and dependent components are separated into imperative and voluntary components. In this research paper, complements are prerequisite to predicates. The meaning of the predicate decides not only sentence structure but also the complement's position, a necessary constituent elem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at complements complete sentences by filling in gaps in meaning regarding predicates. Complements thereby play an important role together with subjects and objects.

In Chapter 3, the scope of complements is defined and the forms of complementary case particles are investigated. Excluding subjects and objects, this study only examines 'noun group+particle' complement forms required by predicates. Imperative adverbial phrases of both noun and adverb forms cannot be

defined as complements because they serve different functions and roles. Complements appear to be nouns or noun forms because they are components of the sentence's main body as well as being targets of the predicate. Although complements which are the same imperative component as subjects and objects become adverbs as well as nouns, only 'noun group+particle' forms are designated as complements to install definite forms and maintain consistency. This is aimed at stabilizing the grammar system by explaining Korean language using more systematic and consistent rules. The complementary case particle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is '-i/ga', '-e', '-(eu)ro', '-wa/gwa'. '-i/ga' is the same form as the complementary case particle stipulated in school grammar but the predicate demanded by 'noun+-i/ga' is different. 'Become(doeda)' and 'be not(anida)' are stipulated in school grammar whereas this research suggests various predicates such as 'correct(matta), like(jota), and dislike(silta)'. The complement in the form of 'noun+ -e' is an imperative adverb in school grammar while this research views it as complement. That's because movement verbs such as 'go(kada) and attend(danida)' and predicates such as 'thank(kamsahada), lean(kidaeda), and take time(keollida)' require the '-e' complement inevitably. '-(eu)ro' is also a necessary ingredient demanded by predicates such as 'come(dakaoda), go(kada) and become(doeda)' and is defined as a complementary case particle in this research. '-wa/gwa' complements are also considered as crucial components of predicates such as 'relate(yeongwandoeda), same(machangajida), meet(manada) and differ(dareuda)'.

School grammar rules governing complements bring about problems in differentiating among grammatical components with the same meaning and function as different components. This phenomenon results from defining complements too narrowly. Consequently, the scope of complements and the forms of complementary case particle should be expanded.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7.